

역사경험담의 존재 양상과 문학적 특성

- 6.25 체험담을 중심으로*

신동흔**

1. 머리말
2. 6.25 체험담의 전승 양상과 유형
3. 역사경험담으로서의 6.25 체험담
4. 역사적 경험에 깃든 보편적 서사의 가능성
5. 맺는 말

1. 머리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경험은 문학적·예술적 상상력의 중요한 원천이다. 인간의 갖가지 상상과 그것을 바탕으로 창조된 미적 형상은 궁극적으로 경험적 현실에 그 바탕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세상에는 허구로 꾸민 것보다 더욱 놀랍고 감동적이며 가슴 아픈 경험들이 많다. 사람들은 가슴에 잊지 못할 특별한 저마다의 경험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경험과 사연을 이야기 형태로 엮어서 전할 때 그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문학이 된다.¹⁾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특별히 의미 있는 국면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가 산출된다. 특히 사회적 사건에 얽힌 체험은 공동의 깊은 관심과 공명 속에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8).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신동흔,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회, 1997, 169-166쪽.

소통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산출하는 원천이 된다. 사회적·역사적 체험을 풀어낸 그 이야기들을 일컬어 역사경험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역사경험담을 산출해온 주요 사건으로는 일제하 대동아전쟁과 중군위안부, 제주 4.3사건, 6.25 전쟁, 4.19의거, 월남 전쟁, 5.18 민주화운동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특히 광범위하면서도 강렬한 기억을 남긴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6.25 한국전쟁이었다. 3년간에 걸쳐 전 국토를 휩쓸었던 그 참혹한 전쟁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당시 한반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당사자로서 전쟁에 얽힌 생생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비교하자면, 그것은 임진왜란이 민족의 큰 시련으로서 수많은 이야기의 원천이 되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구비문학의 전승 현장에서 6.25체험담은 유력한 구연 종목을 이룬다.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때의 경험을 전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의욕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상례다. 설화 구연에 소극적이던 사람들이 6.25가 화제가 되면 태도를 바꾸어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구연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익숙한 모습이다. 그들이 전하는 체험담은 형태와 수준이 제각각이지만, 경이감과 정서적 공명을 일으키는, 문학적 가치를 지니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6.25체험담을 포함한 역사경험담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그간 국문학 분야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일부 구비문학 연구자들이 경험담 내지 생애담에 관심을 보여 왔고,²⁾ 최근 시집살이담을 축으로 한 여성 생애담 연구의 성과가 집적되고 있는 중이지만,³⁾ 연구의 손길이 아직 역사경험담 영

2) 다음과 같은 연구를 주요 성과로 들 수 있다. 김현주, '일상경험담'과 '민담'의 구술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신동훈,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신동훈, 이야기문화의 세대별 양상과 경험적 담화 : 경기도 양주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천혜숙, 「여성생애담의 구술사례와 그 의미 분석」,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천혜숙, 농촌여성 생애담의 주제와 생애인식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천혜숙, 농촌여성생애담의 문학담론적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정현옥, 「여성 생애담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구조와 의미화방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김예선, '살아온 이야기'의 담화 전략-삶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9, 고전연구학회, 2009; 김예선, 「여성의 살아온 이야기에 담긴 과거의 상상력」,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역으로 빠지지 못한 상태다. 경험담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6.25체험담을 살핀 신동훈의 사례⁴⁾를 제외하면, 역사경험담을 주 대상으로 삼은 연구로는 빠치산 체험 관련 김종군의 논의⁵⁾와 4.3사건 관련 박경열의 논의⁶⁾가 제출된 정도이다. 본격적인 문학적 분석보다는 자료 소개 검토에 주안점을 둔 논의들이다.

6.25를 비롯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사 연구는 그간 한국사 영역에서 정치사회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되어 왔다. 이때 주 자료로 활용된 것은 공공기관의 문서나 외교 관련 사료, 각종 사회통계 등이었다. 그러던 중 근래에 민간의 증언을 축으로 한 구술사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산출되고 있는 중이다. 학술지에 제출된 여러 성과들⁷⁾ 외에 단

- 3) 2010년 12월 16일에 “시집살이담의 존재양상과 문학적 역사적 성격”을 주제로 하여 한국구비문학회와 한국구술사연구소가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신동훈과 김경섭, 박경열, 윤택림, 서영숙, 김종군, 김정경 등이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시집살이 체험담들을 소개하고 그 성격과 유형, 담화적 특성과 의미구조 등을 논제로 한 총 7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활발한 토론을 전개한 바 있다.
- 4) 신동훈, 앞의 논문, 1997(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에서 경험담의 사례들 가운데 하나로 한독상 화자의 <6.25때의 인연>을 다루고 그 원문을 부록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신동훈, 이야기문화의 세대별 양상과 경험적 담화: 경기도 양주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50-53쪽에서 김병옥, 정평진 등의 화자가 함께 구연한 6.25 경험담 사례를 부분 인용하고 분석한 바 있다.
- 5) 김종군, 지리산 인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빠치산에 대한 기억, 『인문학논총』 제47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 6) 박경열, 제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4·3의 상대적 진실, 『인문학논총』 제47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 7) 6.25와 관련한 구술사적 연구 성과는 목록을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다음은 눈에 띄는 것들을 제시해 본 것이다. 김귀옥,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경제와 사회』 2000년 여름호, 통권 제46호, 2000; 박찬승, 「한국전쟁과 진도 동족마을 세동리의 비극」, 『역사와현실』 제38권, 한국역사연구회, 2000; 염미경, 「전쟁 연구와 구술사: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동향과 전망』 제51호, 2001; 이용기, 마을에서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경기도의 한 ‘모스크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6, 역사문제연구소, 2001; 정근식, 「한국전쟁경험과 공동체적 기억-영암 구림권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5권 2호, 2002; 박정석, 「전쟁과 ‘빨갱이’에 대한 집단 기억 읽기」, 『역사비평』 2002년 여름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윤형숙, 「한국전쟁과 지역민의 대응: 전남의 한 동족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5집 2호, 2002; 김귀옥, 지역의 한국전쟁 경험과 지역사회의 변화-강화도 교동 섬 주민의 한국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2006; 윤정란, 「한국전쟁과 장사에 나선 여성들의 삶」,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이성숙,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별 기억과 망각」,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김왕배, 한국전쟁의 기억과 반공 보수성의 고찰: ‘남

행본으로 출간된 밀도 있는 성과들이 눈에 띈다.⁸⁾ 구술자료를 통한 한국전쟁 연구는 현장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역사 이해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사 체험에 대한 구술사적 연구는 구술자료 현지조사 연구라는 측면에서 구비문학 연구와 성격이 통하는 점이 있으나 명백한 차이도 있다. 구술사에 있어 현지조사의 초점은 역사적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특정 사건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궁금한 사항을 탐문하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것이 상례다. 요컨대 그 관심은 ‘이야기’에 있지 않다. 형상적 질서와 문학적 긴장을 갖춘 이야기로서의 역사경험담의 실제적 이해를 위해서는 문학적 관점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근간에 수행된 구비문학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6.25 체험담 자료들을 고찰 대상으로 삼아 역사경험담을 새롭게 조명하는 논의를 수행하고자 한다. 역사경험담의 존재양상과 구비문학적 위상을 가늠하고 그 담론적 특성과 문학적·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며, 설화로 표상되는 보편적 서사로의 전이 가능성을 짚어보는 것이 주요 논의내용이 될 것이다. 연구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완결적 논의보다는 문제 제기적 시론이 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2. 6.25 체험담의 전승 양상과 유형

2.1. 자료 개관

현장에서 전승되는 역사경험담의 대표 격인 6.25 체험담은 개념과 범주가 대체로 명료하여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6.25 한국전쟁과 관련된 체험적

정리' 한 부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42집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9.

8)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밀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9;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김경학, 『전쟁과 기억 : 마을 공동체의 생애사』, 한울, 2005; 김귀옥 외,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선인, 2008; 이임하, 『전쟁 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실화를 총괄하여 6.25체험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6.25에 관한 모든 사실적 언설이 모두 여기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경험을 단편적이고 산만한 정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나 사변적 주장을 개진하는 데 주력한 것 등 문학적 담화로서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료는 제외된다. 그 대신 화자 자신의 직접적 체험을 전한 이야기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경험을 전한 이야기도 체험적 사실이 전제된 경우 포괄하여 다룰 수 있다. 직접경험담(1차적 경험담) 외에 간접경험담(2차적 경험담)도 경험담으로서의 자격을 지닌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⁹⁾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6.25 관련 담화 가운데 이 논문에서 고찰대상으로 삼을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제목	구연자	구연시기	조사지역	조사자
1	6.25 때의 인연	한득상(남,64)	1991.12.17	공주시 이인면	신동훈
2	인민군에게 끌려갔다 살아온 오빠	엄정옥(여,66)	2003.01.09	양주시 양주읍	신동훈 외
3	과수원 부잣집 며느리가 맞은 육이오	신금균(여,74)	2003.01.09	양주시 양주읍	신동훈 외
4	소 찾으러다가 이북 다녀온 사람	안인수(남,79)	2003.01.10	양주시 광적면	신동훈 외
5	6.25때 겪은 중공군	안인수(남,79)	2003.01.10	양주시 광적면	신동훈 외
6	몸으로 겪은 한국전쟁	김병옥(남,74) 외	2004.01.15	양주시 광적면	신동훈 외
7	이국충신이 되었던 지난 삶	조관구(남,89)	2006.01.26	서울 종로구	김경섭 외
8	6.25때 미군들의 횡포에 대한 경험담	강영애(여,80)	2006.01.26	서울 종로구	신동훈 외
9	살아온 이야기 : 피난, 장사하던 이야기	박영재(남,80)	2006.03.09	서울 종로구	김종균 외
10	한국전쟁 때 겪은 이야기	탁양선(남,85)	2006.06.22	서울 종로구	신동훈 외
11	한국전쟁 때 겪은 이야기	유응선(남,?)	2006.06.22	서울 종로구	신동훈 외

9) 신동훈, 앞의 논문, 1997(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167-168쪽.

번호	제목	구연자	구연시기	조사지역	조사자
12	한국전쟁 때 겪은 이야기	윤영환(남,?)	2006.06.22	서울 종로구	신동훈 외
13	6.25 경험담	김**(남,77)	2006.07.13	서울 종로구	김종균 외
14	6.25 전쟁 때 여성동맹 위원장 지낸 이야기	홍봉남(여,80)	2006.07.13	서울 종로구	심우장 외
15	6.25 전쟁 때 피란 갔다 온 이야기	홍봉남(여,80)	2006.07.13	서울 종로구	심우장 외
16	1.4후퇴 때 피란 가던 이야기	김상현(여,76)	2006.08.24	서울 종로구	김경섭 외
17	반가운 군사우편에 눈물 흘린 사연	서춘희(여,81)	2006.09.04	서울 종로구	김경섭 외
18	6.25 전쟁 때 여성동맹 위원장 지낸 이야기	홍봉남(여,80)	2006.09.25	서울 종로구	김경섭 외
19	6.25에 참전하여 살아온 이야기	서병하(남,84)	2006.12.20	청주 중앙공원	김종균 외
20	제가한 부인과 전쟁에서 살아온 남편	박철규(남,83)	2006.12.20	청주 중앙공원	김종균 외
21	공산당에 대하여	서병하(남,84)	2006.12.20	청주 중앙공원	김종균 외
22	전쟁 때는 짐승도 숨는다	서병하(남,84) 외	2006.12.20	청주 중앙공원	김종균 외
23	전쟁에서 성기 잘린 이야기	박철규(남,84)	2007.06.14	청주 중앙공원	심우장 외
24	징병할 때 있었던 일	박철규(남,84)	2007.06.14	청주 중앙공원	심우장 외
25	이름이 '신씨'가 된 사연	신씨(여,89)	2007.3.19	대전 남선공원	김종균 외
26	이름이 '신씨'가 된 사연(2)	신씨(여,89)	2007.03.19	대전 남선공원	김종균 외
27	신씨라는 이름	신씨(여,89)	2007.04.16	대전 남선공원	김경섭 외
28	백마고지 전투	전창현(여,70)	2006.10.02	전주 덕진공원	심우장 외
29	6.25 참전기	박태문(남,80)	2006.7.23	대구 노인복지관	신동훈 외
30	6.25 피난 간 이야기	신재규(남,80)	2006.7.23	대구 노인복지관	신동훈 외

번호	제목	구연자	구연시기	조사지역	조사자
31	빨치산도 사람이다	장병호(남,?)	2006.7.24	부산 용두산공원	신동훈 외
32	6.25 피난길에 겪은 고생	박**(여,82)	2008.10.31	서울 종로구	김정경 외
33	6.25 피난과 무심한 남편	박**(여,82)	2008.10.31	서울 종로구	김정경 외
34	6.25 때 기지로 동생을 구한 사연	한**(여,80)	2010.01.12	서울 영등포구	김정경 외
35	6.25 피난 시절의 고통과 설움	지**(여,80)	2008.12.8	강원도 강릉시	최원오 외
36	국군과 미군의 횡포로 고생한 사연	최**(여,78)	2008.12.27	홍천군 안흥면	최원오 외
37	아버지 현몽 덕에 전장에서 살아온 오빠	최**(여,75)	2009.10.17	평창군 대화면	박경열 외
38	6.25 피난길의 잊지 못할 기억들	최**(여,75)	2009.10.17	평창군 대화면	박경열 외
39	전쟁 때 폭탄 나르던 기억	박**(여,76)	2008.10.18	대전시 서구	박경열 외
40	장애인 시능으로 미군 속인 사연	김**(여,83)	2008.11.29	공주시 교동	박경열 외
41	두 번 피난길의 힘들었던 기억	이**(여,80)	2008.11.29	공주시 교동	박경열 외
42	인공 치하에 숨어 지내던 남자들	이**(여,79)	2008.10.17	전주시 완산구	김정경 외
43	무서웠던 인공 시절	이**(여,79) 외	2008.10.17	전주시 완산구	김정경 외
44	6.25 피난 때 남편과 재회한 사연	오**(여,82)	2009.06.30	완주군 삼례읍	김정경 외
45	인민군한테 태극기 들켰던 이야기	박**(여,78)	2009.09.25	무주군 무주읍	김정경 외
46	6.25 때 인공시절의 고초	윤**(여,83)	2010.20.07	군산시 옥도면	신동훈 외
47	국군과 빨치산 사이에서의 수난	이**(여,74)	2008.12.29	하동군 화개면	김종균 외
48	6.25 시절 남편이 겪은 일들	신**(여,82)	2009.02.26	가평군 가평읍	신동훈 외
49	4.3사건으로 죄인처럼 살아온 세월	김**(여,75)	2009.01.06	제주시 화북동	최원오 외

번호	제목	구연자	구연시기	조사지역	조사자
50	다섯 가족을 한꺼번에 앗아간 4.3	부**(여,79)	2009.01.06	제주시 화북동	신동훈 외
51	시아주방의 4.3	현**(여,89)	2009.01.17	서귀포시 남원읍	김중균 외
52	계엄치하 광주에서 아들 찾아 헤매던 일	서**(여,78)	2010.01.21	담양군 수북면	신동훈 외

위 목록의 자료 1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수행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6.25체험담 가운데 정리 보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자료다.¹⁰⁾ 이야기꾼에 의해 구연된 잘 가다듬어진 이야기이다.

자료 2에서 6까지 다섯 편의 이야기는 양주지역 구비전승에 대한 공동조사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것들이다. 현지조사는 주로 2003년에 수행되었는데, 구비문학 전승의 실상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의도에서 설화 이외의 이야기를 함께 수집하고 보고한다는 것이 조사의 방침이었다. 위의 다섯 자료는 그렇게 수집된 6.25체험담 가운데 단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자료집에 선별 수록한 것들이다.¹¹⁾

자료 7에서 31에 이르는 20여 편의 자료는 필자가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한 ‘도심 공원의 이야기문화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 채록된 것이다. 2006~2007년 사이에 전국 주요 대도시의 공원과 노인복지센터 등을 찾아다니며 이야기 조사를 수행하였다. 1차적으로 설화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기회 되는 대로 경험담 내지 생애담을 포함한 다른 이야기들도 채록하여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여러 제보자들이 적극적으로 6.25 관련 체험의 구연에 나선 덕에 적지 않은 체험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자료들은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전10권)에 수록되어 있다.¹²⁾

10) 이 자료는 신동훈, 경험담 자료선,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회, 1997에 포함되어 있다.

11) 이 자료들은 강진욱·신동훈·김현선·전경옥, 『양주의 구비문학 2 자료편』, 박이정, 2005에 실려 있다.

12)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1~10, 민속원, 2009. 자료 7~8은 2권, 자료 9~12는 3

자료 32에서 47에 이르는 16편의 이야기는 역시 필자가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한 ‘시집살이 이야기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 채록한 것으로, 아직 출간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 조사사업은 시집살이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 생애담을 수집한 것이었는데, 수집된 사연 가운데 6.25와 관련된 것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¹³⁾ 6.25 당시의 상황을 길고 자세하게 묘사한 양질의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6.25전쟁 체험이 시집살이라는 화두와 일정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화자들이 6.25 관련 경험을 밀도 있게 구연했다는 사실은 6.25를 경험한 노년세대에게 있어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고 아픈 기억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¹⁴⁾

자료 48은 ‘2단계 구비문학대계 현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채록된 이야기이다. 필자는 가평과 포천, 이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차별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화를 기본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화자들이 설화가 아닌 6.25체험담의 구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위의 자료는 그 중 한 편을 뽑은 것이다.

자료 49~52는 ‘시집살이 이야기 조사 연구’ 과정에서 채록한 이야기들인데, 6.25체험을 전한 것은 아니고 제주 4.3사건(자료 49~51)과 광주 민주화운동(자료 52)을 소재로 한 것이다. 6.25 이외의 역사적 경험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보조적으로 목록에 포함시켰다.¹⁵⁾

권, 자료 13~17은 4권, 자료 18은 5권, 자료 19~24는 6권, 자료 25~27은 7권, 자료 28은 8권, 자료 29~31은 9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자료집에 실린 6.25 관련 담화를 전부 망라한 것은 아니다. 6.25 관련 사연이 소략하거나 이야기 내용이 산만한 것들은 제외하였다.

- 13) 위 목록에 제시한 자료들은 6.25와 관련한 사연이 밀도 있게 담긴 것들을 선별하여 제시한 것이다. 6.25와 관련된 언설이 삽화적인 형태로 포함된 자료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그 수가 30편 내외에 이른다.
- 14) 이 이야기들은 조만간 단행본 형태의 여성 생애담 자료집에 포함하여 간행할 예정이다. 자료 47은 김종군, 앞의 논문에서 빠치산 관련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고찰 대상으로 포함시켜 그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 15) 잠깐 설명하자면, 제주도 주민들에게 있어 4.3사건이 잊지 못할 크나큰 상흔으로 남아 있음을 현지조사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집안 식구가 한순간에 몰살한 사연을 포함하여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았다.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이야기(자료 49)는 담양 지역에서 뜻하지 않게 채록한 것인데, 제보자가 광주로 떠난 아들을 찾아 헤메다가 요행히 집으로 돌아온 아들과 눈물로 재회한 일을 생생한 체험으로 전해 주었다. 광주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면 이러한 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의 자료는 그간 우리 학계에서 구비문학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 보고한 6.25체험담 자료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 연구 사업이나 개인 작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 현지조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6.25체험담을 포괄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위의 자료가 6.25체험담의 실상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들은 설화와 생애담 조사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포착된 이야기들로서, 현장에 존재하는 6.25체험담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6.25체험의 실상과 거기 담긴 의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존재 양상과 담화적 특성의 개략적인 윤곽을 잡아볼 수 있는 수준의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참전용사나 상이군인, 전쟁미망인, 학살 피해자 등의 특수 경험자가 아닌 일반 보통사람들의 6.25체험담을 생생한 구술의 형태로 이만큼이나나 접하게 된 것도 의의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¹⁶⁾

그간의 현지조사 경험을 종합해 볼 때, 6.25체험담은 구비문학 전승현장의 중요한 실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현지의 상황을 가감 없이 말하자면, 전통 설화의 구비전승은 이제 마감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설화를 제대로 기억하여 구연하는 화자가 거의 없으며, 양질의 새로운 설화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세대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1920년대 후반이나 1930년대 이후에 출생하여 근대의 삶

16) 참고로, 6.25 관련 체험담이 구술이 아닌 기록의 형태로 수합되어 정리된 사례는 그간 적지 않았다. 개인 외에 특정 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한 경우들이 특히 눈에 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보처, 『한국전쟁 : 증언과 자료』, 1992; 역사비평사, 『한국현대사의 증언 : 6.25와 빨치산』, 가을호(통권4호), 1998; 최정화, 『6.25 중군기 그 여름 겨울』, 법한, 20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북한의 남침과 서진기-』, 2003; 이보근 엮음, 『연암면 사람들의 기억』, 예당, 2007; (사)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6·25 전쟁 증언록』 1~2, 2008; 6.25전쟁 60주년 조선일보 특별기획 『나와 6·25』, 기파랑, 2010; 35명 명사의 생생한 체험담, 『60년 전, 6·25는 이랬다』, 조선뉴스프레스, 2010.

이들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보자들 대다수가 남성이며 이야기 내용은 ‘체험 수기’ 형식을 취한 것이 대부분이다. 조사 정리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제보자 및 이야기의 성향이 편향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공보처나 참전유공자회, 조선일보사 등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 작업에는 반공이념이 짙게 깔려 있으며, 전쟁에 참전하여 적을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운 사례들도 많다. 이와 함께 이 자료들은 기록과 편집의 과정에서의 변형과 왜곡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6.25체험의 실상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을 살아온 세대는 성격상 ‘설화 이후 세대’에 해당한다.¹⁷⁾ 어려서 설화 문화를 경험했으되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흘러보낸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가치를 두는 것은 상상이 아닌 ‘경험적 현실’이며 서사보다는 ‘합리적 사고’이다. 근대 교육과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이며,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군대체험 등을 겪으며 몸에 밴 성향이다. 그들은 설화보다는 경험담을, 서사적 이야기보다는 세태나 시국에 대한 논변을 선호한다.¹⁸⁾ 그러한 성향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 종목이 6.25체험담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 현장에서 6.25체험담이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역사적 관점에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2.2. 이야기의 유형

앞 절에 목록을 제시한 48편의 6.25체험담 자료는 이야기 형태와 내용이 다양하다. 2,3분 동안 구연된 짧막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1시간 내외에 걸쳐 길게 구연이 이어진 장편의 자료도 있다. 이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유형을 분별해 볼 수 있다.

먼저 구연자를 기준으로 남성 구연 자료와 여성 구연 자료를 나눌 수 있다. 목록에 나타난 대로 48편의 자료 가운데 남성 구연자료가 19편, 여성 구연자료가 29편이다. 남성 구연 자료들이 참전 경험을 포함하여 전쟁 상황을 전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여성 구연 자료는 자신의 구체적 경험에 충실한 가운데 전쟁이 유발한 고초와 아픔을 주로 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¹⁹⁾

다음, 이야기의 짜임새에 따라 일화 형태의 자료와 계기적 구성 형태의

17) 신동훈, 앞의 논문, 2003(이야기문화의 세대별 양상과 경험적 담화), 49-50쪽.

18) 이런 성향은 남성 집단에서 특히 강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성 집단에서도 확인된다. 남성 외에 많은 여성화자들이 설화보다 생애담이나 6.25체험담 구술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19) 이 자료들은 구연자의 수에 따라 개인구연 자료와 공동구연 자료를 분별해 볼 수 있다. 자료 6과 22, 43은 청중이 단순 개입의 정도를 넘어서 공동구연 수준의 역할을 수행한 사례들이다. 이 밖에 특수 경험자와 일반 경험자, 가해자와 피해자, 좌편향 화자와 우편향 화자 등을 분별해 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자료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잘 드러나지는 않았다.

자료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한 가지의 독립적 사건을 전한 것이고 후자는 당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연속하여 구연한 것이다. 사람의 경험이란 것이 본래 시작과 끝이 분명한 이야기가 아닌데다가 6.25 전쟁이 장기간에 걸쳐 이어졌던 터라서 6.25 체험담 자료 가운데는 계기적으로 길게 이어진 것이 많다. 목록 가운데 대다수가 여기 해당한다. 독립적 일화 형태를 취한 것은 자료 8, 17, 23~27, 34, 35 등이다. 일화 형태의 이야기는 서사적 흥미 요소가 깃들여 있고 독립적 완결성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성이다.

자료들은 경험의 형태에 여부에 따라 직접경험담(1차적 경험담)과 간접경험담(2차적 경험담)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경험담은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몸으로 겪은 사연을 전한 것이고 간접경험담은 가족이나 친지, 기타 다른 사람이 체험한 일을 구연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직접경험담 자료가 많지만, 다른 이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한 이야기들도 없지 않다. 자료 2와 17, 20, 23, 28, 48 등이 그것인데, 흥미로운 사연을 담고 있거나(자료 17, 23) 직접체험담 못지않은 실감을 펼쳐낸 것들(자료 28, 48)이 있어 눈길을 끈다.

6.25 체험담을 나누는 유력한 방법은 경험내용에 따른 구분법일 것이다. 여러 기준이 있었으나, 주요 화제를 중심으로 하여 참전담과 피난담, 군치하생활담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전담은 참전담 안에 포함되며, 피난지 생활담은 피난담에 포함된다. 징집이나 처벌을 피해 숨어 다닌 이야기도 피난담에 넣을 수 있다. 군치하생활담은 인공치하 생활담과 빨치산 관련 이야기, 국군과 미군 관련 이야기를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다. 좌우대립 과정에서 학살이 이루어진 사연도 여기 포함할 수 있다. 자료 내용을 점검해 보면, 전체적으로 피난담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경험을 했으며 그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투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일반 여성들에게 있어 피난이 중추적 경험이 된다는 사실 또한 피난담이 많이 구연된 배경이 된다.

끝으로 이야기의 주조를 이루는 정서적 특성에 따라 자료들을 분별해 볼 수 있다. 전쟁 경험이라 하면 극한상황 속에서의 시련 내지 아픔을 전하는 고난담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 무용담을 포함한 활약담과 믿기지 않는 놀라운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경이담, 전시상황에서 벌어진 희극적 사연을 전하는 해학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단 고난과 활약, 경이와 해학 등의 요소는 한 이야기 속에 복합적으로 맞물리기도 하는 것이라서 자료에 따른 분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난담을 제외하고서 보면, 활약담으로 자료 7과 10, 19, 28, 29, 34 등을 들 수 있고, 경이담은 자료 20, 23, 37을, 해학담은 자료 12, 17, 40 을 들 수 있다. 자료 25~27(이는 같은 이야기를 거듭 구연한 것이다)은 짧은 사연 속에 고난과 경이, 웃음의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

3. 역사경험담으로서의 6.25체험담

- 역사와 인간에 대한 생생한 리얼리즘 담화

3.1. 역사경험담의 성격과 위상

이야기판에는 수많은 종류의 담화들이 함께 얽힌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현재적인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과거적인 이야기도 있다. 직접 구성한 이야기도 있으며, 남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도 있다. 사실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무언가를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고, 즐기기 위하여 재미있게 꾸며낸 이야기가 있다. 이들이 서로 한데 얽히는 가운데 삶의 표현과 소통이 이루어진다.²⁰⁾

이야기를 분별함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성’ 문제라 할 수 있다. 삶을 이야기로 담아냄에 있어 사실에 입각한 ‘충실한 반영’을 추구하는가, 상상을 통한 ‘창조적 변형’을 꾀하는가 하는 것은 문학적 형상화에 얽힌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지점에 주목하여 이야기판에 존재하는 이야기 양식을 크게 허구적 이야기(서사)와 사실적 이야기(교술)로 구별할 수 있다. 그 핵심 축을 이루는 이야기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 각기 설화와 경험담이

20) 신동훈, 구전 이야기의 갈래와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비교민속학』 제22집, 비교민속학회, 2002, 370-371쪽.

다. 설화가 허구적인 이야기이며 과거적 완결성이 강한 이야기라면, 경험담은 사실적인 이야기이고 현재로 열려 있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설화가 2차적인 ‘전승’ 차원의 이야기라면, 경험담은 1차적인 ‘생성’ 차원의 이야기이다. 비교하면, 설화보다 경험담이 더 일상적이고 원천적인 담화라 할 수 있다. 설화 가운데는 상상적으로 꾸며진 것 외에 경험적 담화로부터 전이된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²¹⁾

경험담은 체험의 성격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일상적 삶의 체험을 반영한 일반경험담과 집단이 함께 겪은 역사적 사건에 얽힌 체험을 전하는 역사경험담이 그것이다. 역사경험담은 일반경험담과 비교해 볼 때 체험의 집단성과 보편성이 높으며, 사회성과 정치성이 짙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 사회의 역사가 의미 있는 매듭들을 축으로 삼아 전개된다고 할 때, 역사경험담은 그 역사적 매듭에 닿아 있는 이야기임으로 하여 일상성이 강한 일반경험담과 변별되는 의미요소를 지니고 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역사를 반추해 보도록 하며, 역사적 격동에 얽힌 개인적 삶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이야기가 역사경험담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역사경험담을 낳은 현대사의 대표적 사건이 6.25 한국전쟁이다. 본래 경험담은 구연 대상으로 삼는 경험이 특별하고 강력할 것일 때 놀라운 사연과 인상적인 형상을 갖추고 살아나게 된다. 전쟁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전쟁은 사람들을 생사의 기로에 몰아넣는 극한적 체험을 제공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이어진 6.25 전쟁의 경험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뚜렷이 각인되어 많은 이야깃거리를 낳을 수 있었다.

6·25 체험담은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변화시킨 개개인의 삶의 궤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 이야기 속에는 전쟁의 상처가 내면화되면서 사람들의 삶과 의식을 규정해온 과정이 잘 새겨져 있다. 전쟁의 영향은 사람들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미쳐 그 세계관과 행동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개개인의 사적 경험을 넘어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을 이루면서 시대정신을 바꾸는 힘까지 발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일련의 곡절을 담아내고 있는 담화 텍스트가 바로 6.25 체험담이다.

21) 위의 논문, 371~376쪽

역사경험담을 포함한 경험담에 접근함에 있어 언제라도 유의할 사항은 그것이 담화적 본질에 있어 허구적 서사로서의 설화와는 본질적 정체성을 달리한다는 사실이다. 설화의 문학적 의미가 견고한 서사 구조에 기초한 허구적 상상력을 축으로 삼아 실현된다면, 경험담에 있어서는 실제적 경험의 기억과 그것의 충실한 재현이 담화의 핵심 요소를 이루게 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경험담—시집살이담—의 문학적 가치를 가늠하는 세 가지 지표를 제시한 바 있거니와, 그를 기초로 역사경험담을 평가하는 항목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²²⁾

(1) 체험의 질	체험의 역사적 전형성과 절실성. 체험에 깃든 삶의 깊이와 진정성.
(2) 기억과 재현	경험내용 및 관련 상황의 정확한 기억을 통한 폭넓고 생생한 재현.
(3) 표현 능력	사연의 서사적 구조화. 구연의 흡인력과 형상적 표현의 재미.

설화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1)은 설화와 구별되는 요소이고, (3)은 설화와 공유하는 요소이며, (2)는 부분적으로 겹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3)부터 보면,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며 재미있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통해 청중을 흡인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문학적 담화에 필요한 공통 요건이라 할 수 있다. (2)의 기억 및 재현 능력 또한 문학적 담화가 두루 요청하는 것인데, 그 대상과 재현 방식은 이야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설화의 경우 기억의 대상은 ‘스토리’이고 그것의 형상적 재현이 상상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경험담에서는 실제 경험이 기억의 대상이 되며 상황의 재현 또한 본질적으로 상상이 아닌 사실에 입각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억해내는가 하는 것이 담화의 양과 질을

22) 신동훈, 『시집살이담의 담화적 특성과 의의』, 한국구비문학회·한국구술사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0. 12. 7쪽. 본문의 도표에서는 본래의 내용 가운데 (1)의 ‘체험의 질’ 항목에서 ‘시집살이 체험의 남다른 절박함’을 ‘체험의 역사적 전형성과 절실성’으로 바꾸었다. 역사 경험담인 만큼 그 경험에 깃든 역사적 의미맥락을 지표로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설화에 비해 ‘재현’보다 ‘기억’의 중요성이 더 두드러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1)의 ‘체험의 질’은 설화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상상을 통해 재미와 의미를 빚어낼 수 있는 설화의 경우와 달리 경험담이란 특별한 의의를 지니는 삶의 체험이 바탕이 되어야 문학적·인식적 의의를 다할 수 있다. 이때 체험의 질은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 외에 ‘어떻게 경험했는가’ 하는 요소가 중요하다.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우와 부딪쳐 감당하면서 의미를 빚어낸 경우는 체험의 가치가 달라진다. ‘체험에 깃든 삶의 깊이와 진정성’이라 함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²³⁾

이제 이와 같은 사항을 전제로 역사경험담으로서 6.25체험담이 나타내고 있는 문학 담화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2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역사적 경험의 실상

이 논문에서 다루는 6.25체험담 자료들은 전쟁당시로부터 최소 4,50년에서 최대 6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구연된 것이다. 두 세대에 해당하는 긴 세월이다. 하지만 화자들이 구연한 체험담은 그것이 바로 엇그제의 일인 양 생생한 형상을 전하고 있다. 세부적 정황에 대한 정확하고도 리얼한 묘사는 때로 놀라움까지 안겨줄 정도이다.

그런데 그 6.25 그날 그 소네기가 6시쯤 돼 막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리고 7시 좀 안 돼 가지고 아군들이 1개 사단이 그 칠봉산을 넘어 후퇴했어요. 1개 사단이니깐 말도 못 해죠. 근데 그 넘어오는 골짜기가 무신 골짜기냐 하면은 씻우물이골자개라 그랬슈. 그 왜 씻우물이골자개라고 그랬냐, 그걸 짜니 곡석이 아주 여간 잘되지 않아요. 씨를 드물게 해야 수확을 많이 건지, 빌게하면 그거 많이 못 건데요. 그래 그 골짜기로 짝 내려오는데 1개 사단이 내려왔으니까 그 골짜기는 그냥 논이고 밭이고 벼고 아주 그냥 다 망해버렸어요. 아주.

그래 갔는데 그 송전리라는 데 인제 거기서 사는데 우리 인제 집 앞에 우물

23) 위의 글, 7-8쪽.

이 있어요. 그리고 우물 옆에 논이 있고 그 위집에 가면은 고석동이라는 사람이 살고 고 옷집엔 또 이재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집 이제 안사람이 물관리하러 가니까 웬 군인 하나가 저 앞에서 오는데 총을 그저 까꾸로, 이래 짚구는 와요. 그래 좀 오더니, 오더니,

“아주머니, 물 좀 주셔요.”

물을 바가지다 꽤 많이 채워 논 걸 다 먹어요. 얼굴이 그냥 새까매가지고 화약내가 막 나요. 그래도 날 좀 쉬어가면 안 되겠네요 하니까 아, 들어오시라고. 그래 들어왔는데,

“한복을 한 벌 주세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문을 열고 있다, 아, 그 나 입을 라고 하는 거 그저 주라고. 그래 줬어요. 그래 가지고 가선 저 뒤꼍에 가서 갈아입더니 총하고 군복하고 똥똥 말아가지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그때 누에를 인제 한참 처가지고 누에 똥을 인제 갈려내서 말야. 이제 거기다 파묻고 발로 까빠리고,

“너 인제 여기서 썩었다.” <자료 10>²⁴⁾

6.25 나던 날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겪은 상황을 전한 내용인데, 내용이 꽤나 자세하다. 지명이나 인명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도 신기하거니와, 군대가 후퇴하는 와중에 전개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무척이나 소상하여 인상적이다. 특히 콩을 거꾸로 짚고 온 한 군인이 물을 얻어먹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군복과 총을 누에똥 속에 파묻는 모습은 마치 눈앞에서 일이 진행되는 듯이 아주 생생하다. 시각적 형상 외에 화약 냄새와 같은 후각적 이미지까지 어울려 상황적 리얼리티가 더 잘 살아난 상황이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근대소설에서라면 몰라도 설화와 같은 구술담화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전쟁당시의 기억이 워낙 낫설고 강렬했던 터라서 이와 같은 형상이 자연스레 재생될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24)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3, 민속원, 2009, 404-405쪽.

포위망을 뚫고 나온게 이런 핑퍼짐한 데다 밥을 이렇게 퍼다 놔어. 나흘을 굶고 나니께. 뇌이 멋대로 퍼먹으라는겨, 그때는 주도 안하고. 아 거기서 앉으니까 안 맥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조사자 : 오랫동안 굶으셔서.] 응. 땀 순갈 때 먹고 안 맥혀. 참 넘어가들 안하. 그래서 안 먹고 죽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집합! 하데. 그래도 고병들이 낮테. 고병들은 일어나 돌아댕기는데, 쫓병들은 전부 이렇게 하고 쭈그리고 앉았어. 그러니까 집합하라고 막 명령을 나리고, 중대장, 대대장까지 있어. 전부 사단이 포위가 됐어. 아 그랬는데, 거기서 인저 집합하라고 했는데 일어날 수가 있어야 일어나지. 그러니까 중대장이 몽둥이를 들어 어떤 놈을 내갈리데. 이놈이 떼굴떼굴 구르고 못 일어나니까 대대장이,

“얘, 때리지 마라.”

그러더니 한 앞에 둘씩 대들어 여기를 막 주물러. 한참만 주무르니까 무릎 꿇으로 슬슬 기어. 기면 그 놈은 일어나는겨. <자료 19>²⁵⁾

자료 19는 화자가 직접 전쟁에 참전하여 겪은 일련의 경험을 전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전쟁에 얽힌 정황을 길고도 소상하게 전하고 있다. 위 대목은 그 중 배고픔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전한 것이다. 평소의 삶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전쟁이라는 극한 조건이기에 겪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함이 강렬하고도 또렷한 기억을 낳아서 상상만으로는 엮어내기 힘든 형태의 낯설고 특별한 형상을 산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이야기를 전해준 서병하 화자는 경험담 외에 설화도 여러 편 구연했는데, 특별히 열띤 구연을 통해 문학적 형상과 감응을 오롯이 살려낸 것이 위 이야기였다.

다음은 6.25체험담에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피난길에 얽힌 사연에서 가져온 대목이다.

그냥. 그랬는데 임진강 나룻터 있는 데까지 왔더니 얼음이 팽팽 얼었어. 얼었는데 소가 바다니깐 목, 목만 요만 짝 나왔어. 그리구 뿔만 이렇게 있는데,

25)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6, 민속원, 2009, 141쪽.

등어리에다 짐을 잔뜩 졌거든요? 그런데, 얼어붙어갔구 그래 이렇게 보기만 해두 누구 하나 거, 건드리는 사람두 없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다리는 다 끊어났어. 그냥. 다 끊어 놓구서 그냥 지나가는데, 얼음에 푹 빠져갔고 완전히 하반신은 안보여, 그냥. 목만 요만 짝 나왔고 빨하고 얼굴하곤만 있지. 그래갓구서는 인제 어찌면 저렇게 됐나 그러니까 거 빠지니까 사람이 살아야지 그거 건지고 있겠어요, 그냥?

(중략)

그래가주 그냥 이제 그거만 보구서 이렇게 가구 그랬는데, 우리 남자 동생이, 맨 큰 남자 동생인데, 짐을 지구 나오다가 다리가 너무 아프니깐 맨 나중으로 쳐저가지구선, 왔는데, 비행기가 썩- 하고 날아오니까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어, 그냥. 숨었는데, 이 짐이 무거우니까 일어나질 못하구 우리 여덟 식군데, 일곱 식군 절쌍 왔는데 그 남자 동생만 다리 밑에서 안 나오는거야. 막 그러니깐 그게 걱정이 됐구, 시두, 시, 여기서 식구 잊어버리면 영영 그냥, 그냥 헤어지구 마는 건데, 그래갓구 식구들은 안 갈라구 거기서 기다리구. 그래서 내가 만딸이니까 다리 밑으로 갔는데, 짐을 지질 못해요.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일 맞떨어져갓구선 이렇게 저우 왔죠. <자료 16>²⁶⁾

피난길에 겪은 잊지 못할 경험을 전한 내용인데, 이야기 속의 형상이 흥미와 함께 짙은 정서적 감응을 전해 준다. 얼어붙은 강물에 소가 짐을 진 채로 물에 빠져 목만 나와 있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인 형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전쟁과 피난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소를 언 강물 속에 빠뜨린 채로 내버려두고 떠나야 했던 한 가족의 마음자리를 연상되어 가슴 저린 느낌을 안겨준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자칫 가족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어떻게든 피난 짐을 짊어지고 일어서려고 혼자 애썼을 한 소년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거니와, 이는 더더욱 애뜻하고 눈물겨운 느낌을 준다. 작지만 생생한 이러한 형상에서 전쟁에 얽힌 역사적 삶의 단면적 실체를 오롯이 보게 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화자가 피난길에서 겪은 일련의 사연을 길고 자세하게 전

26)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4, 민속원, 2009, 399-401쪽.

한 것인데 역시 경험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살아나면서 짙은 정서적 감응을 유발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제일 부럽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남자가 있어가지고 짐을 짊어지고 애기는 엄마가 업고 이력하구 오는데, 나는 짐을 지고 와야지 인제, 옷, 옷두 가져와야 하고 그 보리쌀 산 것도 가져와야 하고 애기도 업어야 하고. 애기가 아주 어린 건 아는데 세 살인데 세 살이라도 아주 어린 거여. 12월 달에 낳아서. 올 지나고 내년이 세 살이잖아. 그렇게 긴, 확실히 걸지도 못하고 업기도 힘들고. 그걸 업고 오는데, 남들은 그냥 애기를 업고 그것도 대간하라고 남자가 이만한 보따리 짊어지고 여기다 얹어놓고 오는 거. 그럼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 [정중 : 웃음] 애기 업었지, 또 보따리 엮지. 덩기는 얼마나 더워, 그 육이오 때. 그 더운데. 그렇게 포대기는 못 돌리고 떠만. 떠 아나 몰라? 이렇게 길은 띠로다 이렇게 (웃으며) 쫓매고.

오다가는 이 공주 사는 사람이 뗏 사람이 있더라구 그 동네에. 그래서 같이 와야지. 길을 몰르잖아. 걸어서 오는데. 걸어서 안 대너봤으니까. 그 사람들을 놓치면 안되는데 그냥 죽었다고 애기를 업고 쫓으면 그 사람들은 기운이 좋으니까 저만치 보일 만치 안 보일 만치 가요. 그래가주 그늘엘, 나무, 느티나무 같은 게 있으면 쉬어 가는 거 거기서. 그래 그 사람들을 안 놓쳐야 내가 공주를 올텐디 놓치지 않을려고 죽겠다고 쫓아가며는, 쫓아가며는 그 사람들은 시컷 쉬고 가자는 거. “갑시다.” 하고 일어나요. 그러니 나는 이 띠를 끌러라면 한참 끌러가지고 애기를 내려놓고 좀 쉴라고 하면 간다는 거. 그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안 가고 있나? 그 사람들이. 그래 (웃으며) 또 오는 거. 그 자리에서 또 업어야 해. 업구서는 오든 애기도 여름이니까 옷을 별로 안 입었잖아요? 나도 그렇구. 하나 입었지. 등어리하고 그냥 애기 배하고 그냥 미끈미끈미끈. 막 젖어 그냥 옷이 다 젖구. 그래가주 (웃으며) 또 쫓아가는 거. 또 쫓아가며는 얼마나 죽겠다고 쫓아가며는 가서 그 사람들 다 쉬었다고 또 간다는 거 글썸.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수원서 인제 하룻저녁을 잤어요. 하루저녁을 자구선 한참 수원이래도 조금 변두리니까 한 십리 정도 걸어왔어.

걸어오니께 저게 있더라고. 기차를 탄다 그러더라고. 기차를. 타자고, 타자고
그랴. 그러니

‘아휴, 이거 기차를 어떻게 타나?’

걱정이어. 날을 막 썼는다. 근디 금속물품 신고 가는 화물차유. 화물차를 탄
거여. 화물차를 탔는디 그러니 얘기를 업구 보따리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
화물차 칭칭대, 요만침 한 사다다리 같은 게 옆에 붙어있어요. 쇠로 된 거. 그럼
한 칸 한 칸 올라가는데 막 기운이 없어 올라가질 못하는디 보따리는 윗사람이
받아주고 얘기를 업었으니께 못 올라가는 거. 엉간히 올라갔는디 나를 손을 막
꽉 붙잡아서 그때 젊은 사람이 뭐 남의 남자랑 손 붙잡는 게 어딴어. 그때는
뭐, 뭐 별짓을 다 해도 할 수 없는 거여. 그래가주 뭐 끌어안아서 끌어 올려주
더라고. 근디 기차를, 꼭대기를 타봤어야지, 안 타봤지. 근데 남자들은 경험이
있어서 뻑! 하고 소리를 질르면 앞에서부터 소리를 질러주는 거유. 다들

“앞디려요, 앞디려요.”

안 앞드리면 모가지 떨어져 죽는다고 앞드리래니까, 굴 들어갈려고. 굴.
[조사자 : 터널 같은 데? 터널 지나갈라든. 그럼 소리 질르면 인제 거기에 인
제 쇠가 요렇게 판판한 게 있을라면 요렇게 된 데가 있더라구요. 양쪽으로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있어요. 뚝 떨어지잖아. 그냥 기차가 막 달리니께 그걸
탁 손이루 붙잡고 있으면 그냥 소리 질르면 그냥 앞디려가지고 딱 기차에 붙
어있는 거, 그냥. 그러든 다 지나가면 인제 얼마나 석탄이 날러. 그때는 석탄
을 기차, 석탄 다니러 화통에서, 그래 다 지나가면 환하니까 일어나 앉어.
<자료 41>

두 개의 삽화가 연이어 구연되었는데, 둘 다 그 애절한 모습이 눈에 선하
게 다가온다. 한여름에 땀으로 범벅이 된 상황에서 어린 아이에다가 짐까지
 짊어진 채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앞사람들을 분주히 따라가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모른다. 땀 때문에 자기 등과 아이의 배
가 미끈미끈 했다는 상황이 찢듯한 실감으로 다가온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여인이 아기를 지닌 채 애써 기차 지붕에 올라탄 뒤 굴을 지날 때마다 몸을
앞드려 위험을 피하고 있는 모습 또한 실감나는 형상 속에 놀라움과 안타

까움, 애처로움을 자아내고 있다. 전장에 나서서 충격을 주고받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이 진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가지고서는 공주를 와서 여기를 쳐다보니까 그래도 집에 다 온 거 같아요. 여기 시택이 여기 사는 건 알거든. 여 빨간 기와집에 살았었어요. 앞집이. 그랬는디 보따리를 가지고 여기 여까지 쪽 있는데 그냥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 또랑이 그냥 막 넘쳐가지고 또랑인지 길인지도 몰라. 고무신 한 짝을 그냥 그 또랑에 빠져버렸네. 그러니 물이 막 내려가는데 떠내려가 버렸지. 그래가지고 맨발로 왔어.

여길 와서 내가 들어오니께 사촌동서가 마루에서
“아이고 형님이 왔다”고.

나보다 나이는 많아도 형님이라 그라. 우리 집 있는 이가 손위라. 그래가지고 그이를 보니까 그냥 사촌동서를 보니까 우리 집 있는 이는 왔나 안 왔나 그거는 생각도 안 나요. 동서 판 디를 있다가 여길 왔는데, 막 마루에 가, 마루가 이렇게 높은디 나는 서가주 그냥 거기 엎어져서 그냥 막 울었어요 그냥. 그 식구를 보니까 막 울음 뺨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여기 서방님도 여기 와있다고 그라. [청중 감탄(웃음) 울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옷이 다 젖었으니께 인제 옷을 주더라고요. 자기네 옷을 입으라고. 입구 그라고 밥을 먹으래서 밥을 먹구 그라구서는 여기서 그냥 살은 거예요, 그냥. 그냥 살았어 여태까지. 그러구서는 애들 7남매 낳아서 키워서 다 여워었어요. 지금. 막내까지. <자료 41>

마침내 목적했던 피난지에 도착했을 때 사촌동서 앞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쏟은 그 마음자리에 듣는 이 또한 전적으로 공명하게 된다. 마침 거기에 남편이 와 있었다 하니 그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고생해서 피난지에 이르러 보니 남편이 와 있었다’ 하는 식으로 요약하면 꽤나 범상하고 무미한 사연이 될지 모르나, 피난 과정의 고통과 마음 졸임이 생생한 공명을 일으키고 있음으로 해서 부부가 재회하는 대목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극적 장면으로 살아나 듣는 이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이것이 곧 문학의 힘일 것이다. 어떤 문학인가 하면 리얼리티를 구현한 ‘역사문학’의 힘이다.

3.3. 극한 상황의 절박한 체험이 전하는 충격

죽음과 부상, 가족의 이산, 파산 등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일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 전쟁의 상황이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은 평소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경험들을 낳았고, 그것은 큰 충격과 함께 인간과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특별한 역사체험으로서의 전쟁에 관한 담화가 현시하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단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 한 번은 인제 전투를 하다가 인자 전- 뒤 점심시간이 좀 넘었는데 참 밥을 가오는 걸 우리가 받았는 기라. 일개 분대면 아홉 명이거든. 일개 분대면 아홉 명인데 아홉 덩어리 받아가지고 마- 인제 그그 김밥을 요거만-큼 뭉텅이 저 아래가지고 하나씩 주는 거를 받아서 막 먹을라카이 그 인민군이 우리 있는 데를 인자 봤든 모양이제. 마- 기습 습격을 했는데 방맹이수류탄이라카는 게 있는데, 이 방맹이수류탄은 이보다 더 커요.

우리 여럿 앉았는데 복판에 떠져뿌니 말이지. 그 놈 터져가지고 고가 뭐뭐 문지가 풀-썩 나는데 뭐 밥 바닥이 지래 뭐 날라가뿌고 막 배고파가 먹을라카다가 고마 밥상가지 다 날라가버리고. 거기 상에 아홉 명이 앉아서 이래 먹을라 그카는데 여섯명이 즉사해 버렸다네. 그래도 뭐- 여섯 죽어도 살은 사람은 밥덩어리 저- 구부러하는 거 말이지 주워다가 흠을 털어뿌고 그두 먹었어요. [청중 : 웃음] 안 먹을 도리가 없는 기라요. <자료 29>²⁷⁾

근데 전주 형무소가 전주 가 있었거든 군산에도 있었고. 근데 막 거시기 빨갱이가,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그 빨갱이들, 그전에 잡힌 놈들은 막 경찰들

27)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9, 민속원, 2009, 185쪽.

이 도망가면서 다 죽었다대. 그래가지고는 송장 찾으러 그 형무소 죽은 놈 죽 내다 논 놈 찾고 그래갖구 용서 않는다구 지랄들 허드니 인자 또 도망강게 형무소 저 죄익들, 우익들 잡아다 논 놈들 다 죽였잖어.

다 죽이구 가서 막 여름이니까 팔월 달잉게 여름이잖어. 그러니까 막 바께 쓰에다 물 떠갓구 송장 그 피 흘르는 놈 다 따구 뎅기구. 첫 번엔 괜찮은디 나중엔 그놈이 막 썩어갓구 붙어서 막 이만씩, 징그럽다 그러드라구. 첫 번에 냄새나드만 그 냄새 난 지도 몰랐대. 금서 그 자기 가족들 찾으러 뎅겼다고 그라드랑게. 지금잉게 그러지.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다 죽을 거여. 우리는 그런 세상 살었어. 왜정 때 겪었지 공산주의 겪었지 난리를 몇 번 치루나 몰라. <자료 46>

위의 두 자료는 공히 ‘죽음’과 관련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자료 29에서, 밥을 먹으려던 찰나 수류탄이 터져 곁에 있던 동료들이 즉사했다 하니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무상한 순간이라 하겠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곁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도 산 사람들이 밥덩어리의 흠을 털고서 그것을 먹었다는 사실이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인간을 얼마나 미미하면서도 그악한 존재로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편, 자료 46은 죄우의 갈등 속에서 죽음이 난무하고 피가 흘러 처참했던 전사의 상황을 전한 것인데,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주변사람에게 전해들은 일을 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검에 피가 흐르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끔찍한 생생히 다가오면서 소름을 전해 준다.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었을 사람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한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도 그러하지만, 전쟁의 극한 상황은 인간의 본질을 숨김없이 노정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놀랍고 충격적인 상황을 빚어내곤 한다.

그 저 이 산에서루 그 장교 뭐 군인들이 많이 죽었잖아 인저. 그때 인저 많이 죽었는데. 그새 자구 나르는,
“안 갈래유? 안 갈래유?”

모두 동네사람들이 와서 그 자기네 동네사람을 보구 그라드라구. 그래,
“어딜 가유?”

그러니까 산에 그 죽은 사람 그거를 모두 시계 풀구 [조사자 : 아아.] 그 저
옷 벗기구 돈 있는 거 빼, 벗기구 이래서 그거가,

“아유 그러다 뻔떡 일어나서 콧 저 하든 어떡하냐?”구.

그래니까. [조사자 : 산에 시체들이 많으니까?] 그래. 근데 인제 장교 같은
사람 죽은 거는 엄청나대요. 아주 돈두 많이 놓구 옷두 좋구 그 모포 있잖아
그 담요. 그런 것두 좋은 것만 있구. 그냥 그렇게 수입이 많대 그거 장교만 만
내든. 그래 그거를 다 해서 막 짊어지구 온대요. 그 하루만 가르는 뭐 그때 돈
으루다 그래두 몇 만원씩 이롭게 인제 참 벌이를 해가즈 온대. 아유 그런데
그 우리는 이롭게 생각을 허니까,

“죽은 사람 그 으똥게 이룩 해서 이거 끌르느냐?”구.

(몸서리치며) 아이구 예. 난 다른 거는 다 안 무서운데 죽은 사람은 무서워.
나는 자식이 죽었는데두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건 무서워. <자료 15>²⁸⁾

인제 말하자든 재당숙, 재당숙이그든. 그 양반 대해서 이 얘기를 하여, 우리
집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범이 없으면 처라는 놈 총으로 탁.”

당숙을 죽이고 잡디는 거여. 그런 소리 허믄서 그냥 쓰러져서 잠을 들었어.
궁계 동네 사람이 여 남자덜은 다 끌려가 부리고 당숙두 끌려가 부리고, 저
큰 재종 시아제, 시숙도 끌려가 버리고 인제 여자덜만 있어. 그 한쪽에서 인자
물을 길이고, 한 쪽에서, 그 집에서 물을 길이고 막 한 쪽에서 주물고 히가꼬
인제 쪼깨 깨난디 인자 모욕을 허고 씻고 옷을 갈아 입혀가꼬 있는데. 나 혼
차만 있는게 아니라 여럿 있는데 그리여. 이이는 아쌀혀, 그냥. 내 모가지 칼
이 들어 와도, 이, 이 신랑은 아쌀히서 히 버려. 여럿 있는데 그리.

“나는 당숙이랄게 아니라 그냥 돌리 세워놓고 총 있으면 쏘아 죽이고 싶은
마음 진정이다.” 구 그러. 궁계,

“아구, 이 낭반 왜 그러.” 그러. 그렇게,

28)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4, 민속원, 2009, 98쪽.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만 아침에 열두 담을 넘따가…….”

뒀던 것이 작은 집으로 뛰어 들었디야. 그서 뛰어 들어서 형게 밥상을 붙들었
더랴요. 붙들었는디 붙들고 이렇게 문을 탁 영계로 당숙으 허는 말이,

“뒀질라면 너나 뒀지지 왜 나한테 죽으라고 우리 집으루 뛰어드냐?”

<자료 42>

자료 15에서 사람이 시체가 되어 누운 상황에서 그 소지품을 꺼내어 ‘수
입’을 얻으려 하는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삶
을 영위하던 보통 사람들이었다. 전쟁은 저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움을 무릅
쓰고 시체의 주머니를 뒤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일이다. 자료 42의 상황 또한 섬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기 집에 숨어들
어온 당질한테 “뒀질라면 너나 뒀지라”고 말하는 아저씨나 그 당숙을 총으
로 탁 썩죽이고 싶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언하는 조카나 모두 냉정하고
무섭기가 그지없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숨겨진 공격성이
전면으로 노정된 상황이다. 어찌 보면 전쟁에 있어 이와 같은 일이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거니와,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는 그 상황
이야말로 전쟁의 무서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피난길의 모녀가 빚어낸 절박한 상황을 인상적이면서도 충격적
으로 그려낸 것이다.

그래갓군 해는 뉘엿뉘엿 지지, 기마대 병사들이 저거 말 타구 뛰어 돌아댱
기는 거 그거백인 읍어. 그런데두 힘들어서 어똥게 갈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앉아갓구 얘기는 안구 인제. 그랬드니 인제 우리 그 팔래미다러 옆에 앉아서,

“엄마 나 발이 부었어”

그래갓구 보니께 발잔등이 탱탱 부었어. 그래서

“어똥허냐, 어이구 그래갓구, 하루종일 이 어린 게 걸어왔으니까 다리가 이
룽게 뵘네”

인제 그러르서나 앉아서 그룽게 다리를 맨지구 있는데. 요룽게 바리다 보
니까 풀숲에 병이 떨어졌드라구. 그래서 내가 얼릉 이룽게 병을 줬었다구. 줬

어갓구 우리, 그 내가

“아프지? 그러니까 엄마두 아프니까, 가지 모두 아프니까 우리 저거 어떡허
니? 이거 약이야. 먹고 죽는 약인데 너캉 나캉 이거 먹구 죽자” 그러니까

“애기는 어떡허구?” 그러니까

“애기는 너캉 나캉 죽으믄 그냥 죽어 여그서.”

“그 불쌍해.” 그래.

“같이 못 죽어 약이 죽어서. 우리 둘이만 먹구 죽자.” 그러니까

“엄마 나 아프다구 안허구 잘 걸어가께, 우리 애기 죽이지 말구 그냥 우리
같이 살자” 그러드라구. 그래서

“그러믄 아프다 그러지 말구 걷자. 여기 무섭잖나, 벌판이 돼서. 저 말 타는
사람들 밖이 없구 우리 둘이 밖에 없는데 너 울지 았구 잘 걸어갈래?” 그러니
까 그런데. <자료 32>

힘들어 걷지 못하는 어린 딸한테 ‘함께 죽자’고 말하여 일어나 걷게끔 한
어머니의 심정도 그렇거니와, 약을 먹고서 함께 죽어버리자는 말에 어린 딸
이 느꼈을 놀라움과 충격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 특히
나 저 딸이 화자의 친딸이 아니라 남편이 밖에서 낳아 와서 떠맡긴 아이라
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 장면을 떠올리자면 가슴 저림은 두 배 세
배가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일이란 참 무엇인가를 한숨 속에 되새기게 되
는 장면이다.

하지만 전쟁이 이와 같은 눈물 어린 기억만을 남겼던 것은 아니다. 힘들
고 괴로웠던 전쟁 당시의 상황을 골계와 해학으로 재현함으로써 큰 웃음
과 함께 또 다른 형태의 경이감을 유발한 이야기도 있다. 다음은 그 좋은
예이다.

엇저녁에 미, 미군이 와가지고 허이! 막 그면서 막 잡아댕기더라. (웃음)
그래서

“무서워서 못 사이께 나는 너하고 살지, 나는 못 간다”고 이래.

나도 시장에, 갯국 집에 있어도 저녁이면 (얼굴을 가리키며) 여기 막 황칠

을 해야 돼, 또. 육이오 사변 날 때까지 여기 또 남장했지, 그때 몸빼가 없었잖어. 자락치매 입었어. 몸빼가 없어 몸빼가 귀했어. [청중 : 그때는 없었어.] 그래가지구서 자주치매에다가 노랑반호장저고리에다가 앞치매 입고 이래가지고 하이까 아, 이놈의 저녁으로 오면 그 코, 코 굵은 사람들이 오면 뭐라 뭐라 그러이께 무서워 죽겠어. 끌고 가이께. 그 무조건 [입을 다물고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미군 흉내를 함] 하면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화장실에

(힘을 주며) “응, 응.”

미군 말 뭐 모하고 (힘을 주며) 이러이께.

“응? 응.” 이러대.

화장실에 가가지고 도망가서 누다락에 올라가가지구서 그 이튿날은 저녁으로 막 (얼굴을 만지며) 황칠을 하는 거야. 이 꺼멍을. 꺼멍을 막 칠하고 막 입도 그들이 오면 [장애자처럼 입이 돌아간 흉내를 내며 웅얼거림.] [청중 폭소] 아이고, 그것도 한참 그러이께 입이 자꾸 발라지더라고. [청중 폭소] [이후 자신이 이렇게 하면 미군이 “No, No”했다고 설명함.]

(중략)

그것도 너무 오래 들어가이께 누가 또 찌르는가봐. [청중 폭소] 아이고, 못 살아. 그것도 누가 찌르는가봐. 아, 물을 한 솥에 떠가지고 오더이만 나 막 시수를 막 시키는 거여. 비누는 옛날에 어디 있나 뭐, 옛날. 비누를 막, 비누 없이 그양 뚫으이께 번번하잖어?

“오케이.”

[장애인 흉내를 냄] 아유,

“노, 노, 노, 노, 노.”

막 이 지랄 하더라고 그 손, 손님 놈이 쪼끔 높은가봐. [싫다는 미국 군인 흉내를 냄.] <자료 40>

미군이 처녀를 범하려고 갖은 수단을 쓸 적에 그것을 모면하려고 얼굴에 황칠을 하고 장애인 흉내를 했다는 것인데, 화자가 해학 넘치는 구연과 함께 당시 상황을 연극의 요소를 포함하여 실감나게 재현함으로써 큰 웃음을

불러일으켰다. 화자의 기지와 해학이 어찌나 놀라운지, 마치 한 편의 재미 있는 코미디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다. 이 또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드러내 보여준 인간의 단면적이고도 본질적인 형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구술로 펼쳐지는 경험적 역사 담화의 편폭과 깊이란 것이 만만치 않은 것임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3.4. 경험의 의미화와 세계관의 표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경험담은 많은 경우 텍스트 전면에 개인적 정서와 함께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해석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²⁹⁾ 일반경험담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역사경험담의 경우 그러한 의미화의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역사적 경험이 역사와 사회에 대한, 또는 인간과 삶에 대한 모종의 해석을 낳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실제로 6.25 체험담은 이야기 내용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역사적 상황이나 세태에 대한 논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남성 화자들이 강한 이념적 지향을 드러내며 설교에 가까운 언설을 길게 늘어놓는 상황을 흔히 경험하게 된다.

역사체험이 이념적 논평으로 이어지는 장면과 만나는 것은 그리 편안한 일은 아니다. 그것이 일방적인 계몽적 언설로 흐를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그것이 6.25 체험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이라 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 고찰대상으로 삼은 자료들만 하더라도 계몽적 논평을 전면에 내세운 자료는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였다. 더 많은 자료들이 경험의 재현과 공유에 충실한 입장을 취했다. 주제적, 세계관적 의미는 그 경험으로부터 우러난 형태로 덧붙여지곤 했거니와 그것은 논리적 설득력과는 다른 차원의 ‘문학적 설득력’을 자아내곤 했다. 문학적 관점에서 역사경험담을 살핌에 있어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 생각되거니와, 그와 관련한 몇 개의 사례를 단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9) 신동훈, 앞의 논문, 1997(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172-173, 179-180쪽.

전장 일어나며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너 더 먹어라. 나 먹었다. 너 더 먹어.”
 이라. 거기서 저만 덩다 쳐먹으면 부상당해도,
 “저 새끼 제 입만 안다.”고
 후송을 안 시켜줘. 죽어 그건. 다 나 살 욕심이며 다. 그래 서로 나도 배가
 고파 죽겠어도,
 “너 더 먹어. 난 먹었어. 너 먹어.”
 이랬어. 군대는 그 우리 같 적에는 하루 담배 열 개, 밥 시 그릇은 있어. 어
 디 가도 건 남겨 놔. 그 사람 암만 늦게 와도 그건 먹어야 뒤야. <자료 19>³⁰⁾

전쟁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뜻을 담은 위의 담화는 이른바 ‘참전 용사’에 해당하는 화자가 구연한 것이다. 세상에 나서서 행세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참전 용사들이 독선적인 태도로 일방적인 이념적 주장을 펼치곤 하는 것과 비교하면, 위의 언설은 작지만 소중한 깨우침으로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채 다가오고 있다. 그 설득력이란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몸으로 깨달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 외에 일련의 서사적 담화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그 설득력은 다분히 문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 7에 해당하는 <이국충신이 되었던 지난 삶>은 종로구 이야기관의 유력한 이야기꾼인 조판규가 특유의 종목 가운데 하나로 구연한 것인데, 하나의 길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설득력 있게 구현하고 있다. 화자는 경찰이었던 재중 동생을 숨기고 있던 차에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남로당 지도책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온 사람 하나가 그와 함께 그 일을 맡아 보았다고 한다. 화자는 수복 이후에 요행히 처벌을 면하고 동원부장 일을 맡게 되어 ‘이국충신’ 소리까지 들었는데, 함께 일했던 제주도 사람은 처형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그때 화자는 그 사람을 지원병으로

30)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6, 민속원, 2009, 143-144쪽.

추천하여 군대에 들어가게 했고, 그 덕에 그 사람은 좌익 경력을 씻고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화자는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오래도록 자신을 기억하며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뿌듯한 심정을 나타냈다.

아- 그래가지구서는 그 오문석이가 뺏년 지내니께 제대를 허고 왔어. 와가지고, (뿌듯하다는 듯 웃으며) 즈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갔어, 인제. 아- 대한민국 국군 제대병인께, 어떤 늑이 뭐라고 히여. 과거가 짝- 청산 되얏지. 깨끗이. 아- 공계 자기 고향으로 가서 기양 아- 이 늑이 기양 그쪽으 인제 그 것 보구 뭐라구 혀? 상의, 뭐, 용사라고 허냐, 뿔이라구 허냐. 그- 제대병들. 아- 거기에 참여히가지고 고향에 가서 자기 어무니허구 잘 살믄서 그냥 가-끔 우리 집이루 소포가 와. 그냥 고기 잡아서 말린 거. 잉?

그래 그것도 얻어 먹어보고 이러다가 서울로 온 뒤 한 이십년, 내가 되는디. 그쪽으로부터 시방 소식이 끊어졌어. 아- 근디, 아- 요, 내가 여그 와서 언제 한번 그 얘기 했어. 그 오문석이라는 사램이 전화번호책, 전국의 전화번호책 있잖어. 전화번호책을 보고는 우리 고향에, 우리 동생 전화번호를 알았어. 아- 그래 우리 동생허고 통화가 뒤얏어. 저- 시골에 사는 우리 동생. 아- 그렇게 우리 동생이, 내 안부를 물으면서,

“지금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십니까?” 행께,

“아- 지금 서울이서 살고 계신다.”고 허닌께,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주쇼.” 형께. 아- 우리 동생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게며.

아- 그래가지고 오문석이가 우리 집이루 전화가 왔어. 그- 은지 날 보러 온디야. 참, 땀, 땀달 안 뒤여. 그런 지가. 그양 겨울께 추운께 못 오는게며. 봄, 따듯-허면 한번 올랑가 몰라. [몇몇 청중이 설 대목에 오문석이가 생선 보내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고, 오문석이를 오라고 하라고 했다.] <자료 7>³¹⁾

화자는 이 이야기에 어떠한 직설적인 교훈적 담화를 덧붙이지 않았다. 그는 서사 그 자체로써 주제적 의미를 오롯이 전달하고 있다. 전쟁의 민감

31)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2, 민속원, 2009, 373-374쪽.

하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신의를 놓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을 보살핀 은 덕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인간적인 처사는 결국 좋은 보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철학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사의 형태로 의미화된 세계관이 발휘하는 설득력은 상당한 것인바, 위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이 큰 관심과 함께 경탄을 나타내 보인 것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생경한 이념이 아닌, 이야기로 육화된 문학적 인식이 전하는 힘이다.

6.25체험담을 구연한 화자들 가운데 여성 제보자들은 전체적으로 남성 제보자들보다 더 경험 자체에 충실한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전쟁 중에 여성들이 겪은 고난은 전쟁에 직접 나선 남성들에 비해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 고난의 사연들은 인간의 길과 삶의 역정에 대한 주제적 의미를 다양한 형태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 예로 앞서 살핀 자료 32의 화자가 친자식도 아닌 자식을 데리고 힘든 피난생활을 이어간 것은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인생철학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역사와 인간에 대한 인식적 의미가 드러난 자료를 하나 더 소개한다.

그래 쏘아서 밥을 이런 구밥을 해서 퍼 내놓고 밭에 밭에 밭에 나가서 무수를 뽑아다가 장국을 끓이고 (웃음) 옥수수 큰 가마에다 한 가마니 돼. 일곱 놈인가? 다 빠졌으니 뭐. 그레이 한 가마이 되는 그걸 내다 씻기 달래. 저 마당에다가 함태기 이래는 거 구밥 모두 내다놓고 거다 다 건져다 담아놓고 밥을 인제 뭐, 그랬더니 뭐 찰부지가 뭐 있는 대로 인제 우리 먹는 반찬 있는 대로 인제 해 봐주는 기, 아주 우리 조선 나와서 이렇게 잘 먹기가 처음이래. 장국도 맛있고 이렇게 잘 해 먹기, 잘 먹는 게 아주 처음이라고. 아주 잘 먹었다고 이래면서 밥이 남음이 싸달라 그래고, 장하고 싸달라 그래고. 먹고는 그 배량에 옥수수를 지만큼 다 갈라줘어오.

다 갈라주고는 그래도 가자 소리 안 하고 가는 길을 어느 산으로 어떻게 가면 북쪽을 가는 걸 갈쳐달라는 거야. 그래 오빠들이 나가서

“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 방림 그쪽으로 가니까 내려가면, 가지 말고 이쪽으로만 곧장 가면 북한산을 갈 수 있으니까 강릉 쪽을 나가고 북한산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라”고.

그러니까 아이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간 다음에는 가자 소리 안 한 게 고마워서. (웃음) 다 고맙다 하지 뭐. 마커 그 청년들이 붙잡고 앞세우면 가야지 우쭐 거여. 안 죽을라면 가야 되는 거여. 그래 아주 가자 소리 안 한 게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고맙다고 하, 잘 가라고, 제발 잘 가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인물이 좋습니다. 다 사람들이 잘 나고 북쪽 사람들이 인물이 좋아요. 잘나고 마음씨는 다 참 지금 말따나 남북을 갈라놔서 우리가 그렇지 마음은 다 한마음이지. <자료 38>

후퇴하는 인민군이 음식을 청한 상황에서 마을사람들이 음식을 해서 내자 인민군이 맛있게 먹고서 고맙다면서 물러갔다는 이야기이다. 화자는 그 일을 겪고 보니 북쪽 사람들이 우리와 똑 같은 좋은 사람들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전쟁의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음식을 해내는 사람들과 그것을 먹고서 고마움을 표하는 인민군의 모습은 ‘웰컴 투 동막골’을 연상시키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마을사람들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떠나간 그 선택에 대하여 안도하고 고마워했던 마음이 수십 년 뒤에까지 이렇게 남아서 ‘남북은 결국 한마음’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이어지며 듣는 이들의 공명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이 또한 경험과 사연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의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6.25 전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식적 의미가 이렇게 훈훈한 것들 뿐일 리는 없다. 앞서 본 것처럼, 동료의 죽은 시체를 옆에 두고 배를 채우고, 시체의 주머니를 뒤져 수입을 구하며, 당숙과 조카가 서로를 원수로 대하게 한 것이 전쟁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부모자식과 형제, 친구와 이웃이 서로 원수가 되어 잔혹한 보복을 주고받은 사례들과 수많은 양민이 죄 없이 학살된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한 경험 또한 그와 밀착된 인식적 의미를 낳았을 것이며 그것이 각인되는 힘은 더더욱 강렬했을 것이다. 그 세계관적 양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여기서 감당할 수는 없겠거니와, 다만 구체적인 경험적 사연과 밀착된 ‘문학적인’ 현실인식이 강한 힘을 응축하여 발휘한다는 사실만을 다시금 확인해 둔다.

4. 역사적 경험에 깃든 보편적 서사의 가능성

- 구전을 통한 경험의 전이와 설화적 재구성의 문제

4.1. 2차적 경험담의 존재 양상과 성격

역사경험담은 경험 당사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전하는 것을 기본 형태로 한다. 한 개인의 경험이란 본질적으로 그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서, 타인에게로 옮겨가면 담화의 정체성이나 의미가 약화 내지 해체되는 것이 보통이다. 상상적 완결성을 바탕으로 대상화가 이루어진 보편적 서사 담화로서의 설화와 구별되는 특성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경험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이되어 유포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컨대, 경험자와 생활적, 정서적으로 밀착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경험을 자기 것처럼 받아들여 전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6.25체험담에서도 자식이 부모의 경험을 전하고 아내가 남편의 경험을 전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를 두고서 경험담이 타자에게로 전이되어 보편적 서사로 나아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그여코 그 사람한테, 아니 벌써 이년 있다 고생혈레니까. 그 사람한테 걸린 거지 뭐유, 글썸.

[청중 : 그래 고생하고 나오셨어?] 아구, 그럼. 그래가지고 붙들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자기네가 가니까는 가자.” 그러더라. “왜 여기서 숨어 있느냐?”고 지랄하드래잖아.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뒤를 보러 여글 나와 앉아 있었다.” 그랬더니, “아니 왜 집에서 보지 여길 나왔냐?”고 막 지랄하드래잖아. 아- 그래서 붙들려가서 그랬더니. 가니까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들고 가자고 그러더라. 두 사람을 더 앞에, 들것에다가. 아- 그래 꼼짝없이 앞뒤에서 그냥 막 저거 하는데,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어떡허든지 들고튀어야 할 텐데, 될 수가 없더라. 그랬더니 춘천, 그 때 시내 어디까지 갔었는데. 그걸 들고 갔었는데. ‘밤에 이거, 이거 꼼짝없이 붙들

려 가는 건데. 붙들려 가도 죽을 거구, 여기서도 죽을 거구.’ [청중 : 음 그래. 어- 도망을 치다가도 죽을 거구, 이판사판.] 그래. 이판사판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는 이 새끼들이 앞뒤로 탁 기냥 지키고 있더니, 어떡허다가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지 이 새끼들이 다 들어갔드래.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뛰다가, ‘내가 죽으면 죽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는다.’ 아- 그리고 산으로 막 뛰었대요. 기냥 보구서 막 총을 쏘구 막 허드래. 허니 산이고 어디고 막 하두 굴르고 뒹뒹뒹 몰랐었대요.

그런데 글썽 나중에 사흘인가 나흘인가 만에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빠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집을 들어오신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오빠 뒹 돌았지 뭐. [청중: 응. 거- 간 사람은 다 죽었어.] <자료 2>³²⁾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하고 다섯 여섯이 인제 이렇게 쭉 가는데 두 사람은 요기서 선선히 이렇게 가고 그 사람들은 부지런히 가고 쫓겨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앞에 조카를 쿡 찌르고는 가다가 이제 자꾸만 망만 보지요.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좋은가 하고.

아 천야만야한 그런 산인데 일로 뛰어야 저 사람네한테 덜 붙들리나 하고 이제 우리집 양반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 사람네가 일로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천야만야한 그 꼬드레봉인데 그 앞에 애를 탁 찌르고서 내리 뛰었는데 뭐 눈이 여기까지 차더래요. 그땐 눈이 여- 거긴 아주 화악산은 아주 눈이 엄청 여기까진 타는데, 여기까지 다 이제 눈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이 얼굴만 요렇게 나오곤 하는데, 원체 뛰기도 잘 뛰어요. 학교 땡길 적에도 그렇고 많이들 잘 뛰어요.

(중략)

그런데 거길 내리 뛰는데 툭 치고선 내리 뛰는데 아니 아저씨가 한 걸음이면 나는 두 세 걸음을 걸어야 하니 나는 꼭 붙들려졌더래요. 그런데 그래도 안 붙들리고 이렇게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그러진 테가 있더래요. 고 안으로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아 쫓겨가는 사람이 총을 암만 쏘도 맞질 않잖아요? 이렇게 된 데 이 안에 가서 숨었으니까. <자료 48>

32) 강진옥 외, 앞의 책, 71-72쪽.

두 자료는 각기 인민군에 붙잡혀 가던 오빠와 중공군에 붙잡혀 가던 남편이 탈출한 사연을 전한 것인데, 내용이 서로 유사하다. 군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죽음을 무릅쓰고 뛰고 굴러서 사지를 벗어났다는 것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자료를 보면 화자가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일을 겪은 것처럼 열띤 태도로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의 묘사 또한 직접체험담 못지않게 구체적이며 생동감이 있다. 이러한 열띤 태도로 생동감 있는 구연은 한 사람이 겪은 사적이고 특수한 경험이 타인에게 오롯이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적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경험이 흥미로운 서사적 요소나 극적 요소를 갖춘 경우 그 사연이 타인에 의해 2차적 체험담으로 구연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한 여성 화자가 시아버지의 백마고지 전투 사연을 전한 다음 이야기는 그 좋은 사례가 된다.

근데 이제 양쪽 산이 다 적군이고 다 적군이야 백마고지까지. 그래 우리 아저씨가 어차피 죽을 바이니까 씨는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독신은 다 나와라 그래서 독신은 빼 주고, 나머지에게는 전부 유서를 써라 그랬대. 죽으면은, 안 오면은 우리를 이거 보내라 이 편지를. 그래서 누구는 (머리에 손을 가볍게 올리며) 머리카락도 잘라서 넣고, 누구는 뭉 손톱도 잘라서 넣고, 다 이자 유서를 쓰고.

자기가 생각할 때 4시에 새벽 4시에 올라가면 좋겠더라고요. 4시에 올라 가면은, 왜냐하면 이제 한참 붙어서 싸운 다음에 이제 먼동이 여명이 이제 밝아 올 테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중대장이니까 안자고 그렇게 있다가 우리는 새벽 4시에 올라간다. 세 줄로 올라간다, 올라 갈 때. 이렇게 싸고 안 가고. (손가락 셋을 펴 보이며) 세 줄로, 왜냐하면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안 돼, 이렇게 줄로 올라가야지.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다쳐서 총을 맞아서 죽게 되더라도, 입을 꼭 아물고 죽어라. 왜냐하면, 위치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사격을 할 테니까 [조사자 : 음, 소리를 내지 말아라] 절대 죽어도 이렇게 하고 죽어야한다. 이

렇게 인자 이렇게 하고, 중대장이 야광이 달린 모자를 이렇게 딱 쓴다며 (머리 뒤로 손을 가져가며) 뒤애가 야광이 달린 모자를 그러고 맨 앞애를 올라간대.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올라오는 거야 뒤에서.

그러는데 내가 호각을 확 불으면은, 와 하고는 딱 엎드려라 싸우지 말고. 그리고 한참 막 폭탄이 떨어지고, 두 번째 불면은 또 와 하고 엎드리고, 세 번째 불면은 올라서라 이제 백마고지로. 그렇게 말을 했대요. 해서 이제 참 그대로 하고 새 번째 불으니까 이제 왁 하고 이제 올라 간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제 자기는 어차피 죽을 테니까 쪽 죽어왔으니까 죽을 테니까 싸우지도 않고 그냥 높은 데가 있길래 올라 서 있었대, 그냥 이렇게. [조사자 : 폭탄야 날아와라.] 오든지 말든지 이제 어차피 여기서 다 이제 죽어서 나갈 테니까 서 있었는데, 한 두어시간 막 육박전이 벌어졌는데 먼지가 그냥 뵈도 않는데 이렇게 이마를 탁 해보고 적병이면 이제 쏘든지 찔러 죽이든지 막 그러는 판이래요. 그러는데 서서 이렇게 보니까 두어시간쯤 지나니까 약간 이렇게 햇볕이 올라 오는데, 우리쪽 머리가 더 많더라. <자료 28>³³⁾

앞선 중대들이 백마고지를 오르다 전멸한 상황에서 진격 명령을 받은 시아버지가 작전을 펼치는 상황을 서술한 것인데, 묘사가 상세할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흥미롭다. 유서를 써놓고서 죽음을 무릅쓰고 출발한 것이나 진격 시간을 새벽 4시로 결정한 것, 세 줄로 줄지어 올라간 것, 총을 맞더라도 이를 악물고 소리를 못 내게 한 것, 일부로 호각을 분 뒤 엎드려 적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한 것 등이 두루 절묘한 지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높은 서사적 구성력과 흥미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러한 지략이 성공을 거두어 마침내 고지에 올라 적군을 누를 수 있었고 시아버지가 무사 귀환하여 화랑 무공훈장까지 탔다고 하는 데서 한 편의 서사는 온전히 완결된다. 화자에 의하면 이 사연은 전사(戰史)에도 올라 있다 하거니와, 그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공유하여 전승할 수 있는 보편적 서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위 설화 자체는 머느리라고 하는 지인에 의해 구연되었지만 그 자체로서 제3자에 의해서 구연될 가능성이 널리 열려 있다는 것이다.

33)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8, 민속원, 2009, 144-145쪽.

4.2. 서사적 완결성과 전이력의 발현 양상

6.25체험담은 사람들 공통의 역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을 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반영한 일반경험담에 비해서도 보편적 서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6.25체험담 자료 가운데는 실제로 그러한 서사적 자질을 갖춘 것들이 꽤 포함되어 있다. 먼저 경험자 자신에 의해 1차적 경험담으로 구연된 자료들 가운데 보편적 서사로서의 가능성을 짚게 지닌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게 인제 2월 초하룻날 나가가지고 나가는 그날부터 몸이 아픈 기 뭐 아무 짓을 해도 못 곤치고 그냥 5개월 만에 세상을 뜨시는데, 그 오빠하고 우리 친아버지하고 둘이 꿈에 선몽을 하더라는 거야. 이제 선몽을 하민

“너가 여기 와 있는 데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짓을 하고 있냐”고, “단박 어서 여길 떠나야 한다”고 선몽을 하더라고요.

그 꿈을 깨고 나니까 아주 몸이 막 불화리(불화로)처럼 몸이 디리 다는데 땀이 그양 비오듯 하더라잖애.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의무대로 바로 입원을 시키더라 군에서. 그래 의무대로 입원을 시키어 뭐 계속 뒤뒤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오니까, 낫질 앓으니까 그 사람들이 의가사제대 시기미 집에 가서 치료를 하고 오라고 보내는 거야.

보내니 집에 오니 그 산골에 그 6.25 그때 그날 그 마당에 그렇게 어렵게 사는 마당에 뭐 쌀이 있나 뭐 거기보다 더 먹는 기 더 어렵고 치료는 더 못 하는 거야. 그래니 사람이 점점 더 죽게 되는 거야. 아주 그양 꺾테기만 남는 거야. 그 뭐가 잘못 된 걸 알면 좀 곤치보는데 그건 몰르고 이제 그렇게 나가다 보이 걸어온 사람을 군에 보낼 적에 업어서 업고, 그 큰 재를 업고 땀기다가 차를 태켜서 군에 보냈어요. 그런 기 그대로, 그대로 제대를 했어요. 의가사제대를 했어요. 그대로. 인제 군인 만기를 못 채우고. 그래니 그대에 그 이렇게 볼 때에 조상이 인제 살려줬다는 거. <자료 37>

6.25 당시에 군대에 가 있던 화자의 오빠한테 죽은 아버지와 형이 현몽하여 몸에 이상을 일으킴으로써 오빠가 의가사제대(의병제대)를 하게 되어 군대 간 오빠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부터 산에 다니며 가족의 무사태평을 위한 정성을 들였었다고 하거니와, 오빠가 무사히 돌아온 것은 죽은 조상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 화자의 철석같은 믿음이었다. 이 이야기는 현몽을 통한 죽은 이의 음조라고 하는 신이적 서사 요소가 작동하고 있어서 2차적 전승으로 이어질 만한 흥미와 경이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자가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전했을 가능성이 크거니와, 그 이야기를 타인에게 옮긴 또 다른 전승자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지혜담에 해당하는 보편적 서사 요소를 갖춘 이야기의 사례이다.

그래서 인제 사촌 외가, 저 진짜 외갓집 동네를 내 남자 동생허구 나하구 가는 거야. 들만 빠져두 여기다 우리 언니가 그 혼수 때 가져간 옷을 인제 다 없어진 거야. 게 갔는데 갈 적마다 군대군대 보안소래는 게 있어. 이게 인민군 사무실에서 젊은 남자는 끌어가야해. 저 의용군으루. 근데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화자찬 한번만 할게. 지팽이 나무를 하나를 거기서 가지구 왔어. 보안소만 있으면 내 동생보구 눈감으라구 그러는 거야. 그땐 선그라스가 없어.

“눈감고 너 이거 너 이러구 나가 너 끌구 간다.”

장님인 줄 알고 통과해. 우리 친정아버지가 나- 개허구 쌍이 돌아오니까. 내 손목을 붙들고,

“아들허구 딸이 바꿨으며는 한 시대가 일어날 걸 그랬다. 어떻게 그런 머리를 썼느냐”구 그러셨어. 응.

개를 무사히 내가 디리구 땡기는 거야. 외아들이니까. 근데 끌려가기 딱 좋은 나이야. 응? 그러니까는 어떻게. 게 막대기 하나를 가지구 썬그라스는 없으니깐

“너 눈 깜박깜박하믄 안 된다, 너.”

아주 죽어라 허구 내가 옆에서 그러니깐, 그 막대기를 짚구두 내가 끌어.

이러구 피난시킨 동생이야.

그 우리 아버지가 나를 껴안구,

“참- 니 머리가 너무 했다. 저렇게 나은 생각, 나도 못하는 생각을 해가지구. 응? 이 녀석을 이렇게 무사히 디리구 멩겼느냐”구. <자료 34>

인민군 치하에서 동생을 데리고 길을 가면서 동생에게 장님 행세를 시키고 지팡이로 이끌고 가는 시늉을 함으로써 동생이 군에 붙잡혀 가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사연이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머리를 썼느냐며 탄복했다고 하거니와 과연 그 기지가 놀랍고 상황이 비현실적이어서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다. 박문수가 급히 도망치던 사람을 숨겨주지 못하고 종적을 알려 살해되게 한 데 대해 한 아이가 “막대기를 짚고 봉사 노릇을 하면 되지 그것을 해결 못하느냐”고 질타했다고 하는 설화를 연상시키는, 한 편의 잘 짜여진 지혜담이다. 이 사연 역시 화자의 주변사람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제3자한테까지 전이되어 작지만 흥미로운 화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의 일화적 이야기들 또한 설화에 준하는 흥미 요소를 갖춘 것들이다.

근데 제가 행정반으로 있었는데 그 하루는 보초병이 심야 보초병이 여기 섰다서 새벽에 청소할라고 빗자루 들고 이렇게 쓸고 나가는데 이, 이 청소하면서 보니 인민군이 나네요. 인민군이 자수하는 거야. 자수. 총을 들고 일루 가구 일루 가미 보내주는데 이 저, 이 사람은 빗자루로 쓸고 있다가서 다급하 니께네,

“손들어.”

(웃으며) 빗자루를 들고서는, [청중 웃음]

“손들어.”

근데 그 인민군이 월남, 월남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 판사람 같으면 그 죽었어. 응? 빗자루를 들고. <자료 11>³⁴⁾

34)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3, 민속원, 2009, 417쪽.

별 일이 다 있지. 내가 부산서루다 그, 거기 지방 사람들 붙들어다 막 그 군 인인가 강제로 보낼 적이, 어떤 여자가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근데 며느리 얻었는데 아직 애가 없는데 며느리, 며느리가 애, 임신 될 시절 됐다고 어떻게 한 번 좀 이렇게 자게 해 달라 그래서 그 좀 동네, 부산 동네, 유람국민학교 그 운동장에 그 목수들 일하는 천막이 있었는데 아, 거기서 그 시켰다니까 우리가.

아, 그렇게 해서 낳아지 어떡 할까. 그 그놈은 가면 그날, 그날 저녁에 죽을 란지 그 이튿날 죽을란지 모르는 걸 뭘. 그런 일을 다 해봤어요. 여자도 그냥 환장을 하더라고. 그래 어떡허. 우리가 그랬지.

“너 어떻게 됐거나 들어가서 너희 안식구한테 네 씨를 하나 떨어뜨려라.”

그래 그런 짓을 다 해봤어. 오죽 하면 그러겠어. 그거 가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자료 23>³⁵⁾

자료 11에서 전쟁중에 인민군이 갑자기 나타나자 급한 길에 잡고 있던 빗자루를 들고서 ‘손들어’ 하고 소리쳤다는 것은 치우담 내지 실수담에 해당하는 희극적 서사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그 인민군이 마침 귀순하러 온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결과와 어울려 작지만 재미있는 완결적 서사를 이루고 있다. ‘무지의 용기’나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치우담 형태의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자료 23은 전쟁중에 있었던 웃지못할 희극적 상황을 흥미롭게 전하고 있다. 전쟁통에 청년들이 징집되는 장소에서 대를 이을 자식을 얻기 위해 부부가 합방을 하는 상황이란 깨나 우스우면서도 가만 생각하면 슬프고 절박한 면도 있어 절묘한 이야기가 된다. ‘그 합방의 결과로 여자가 임신하여 어찌어찌한 아이를 낳았다더라’ 하는 사연만 이어지면 한 편의 훌륭한 설화로 탈바꿈할 만한 사연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생이별이 난무하는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세간에 회자될 만한 이야기거리를 낳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 이야기는 6.25와 관련되는 여러 담화 가운데도 큰 관심과 화제를 일으킨 것이다.

35) 위의 책, 314쪽.

그래서는 고생 많이 했어요. 맨주먹으로 피난 나와 가지고 친정으로 피난 나와서. 그래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때에 신씨가 됐어. 내 이름이 원 신정헌데 신정헌으로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저, 다 면청 뭐 다 그냥 불났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이 홀랑 다 탕났어요. 그랬는데 새로 내야 하는데 인제 인구조사를 해서 다 인제 적발해야 도민증 줘야 나오죠. 친정으로 피난 가 있는데 우리 올, 올케 언니가 못 일러 줘서. 그래 나는 밭에 일하러 가고, 오빠랑. 근데 우리 올케 언니가 나이가 많아서요, 못 일러줘가지고,

“아이, 신씨네 딸이니, 신씨네, 아유,”

시누이 이름을 대라고 하니께,

“이름이 뭇이더라, 뭇이더라?”

노인이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담임 서기니 뭐 모두 다 들어와 가지고 답하랬어요?

“아이, 신씨네 딸이니께 그냥 신씨로 해 댜. 신씨로.”

해줬어요. 그래서 도민증에도 신씨로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곤쳐요. 그때 곤친다고 하니께 내비려 두래, 어른들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그걸 돈 들여 곤치느냐고. 내버려두래. 그래서 그냥 뭇어. 그래서 신씨. <자료 25>

화자는 두 차례 현지조사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이 이야기를 구연했거니와(자료 24~26), 전쟁통에 호적이 유실되어 뜻하지 않게 자신의 본이름을 잃고 ‘신씨’라는 괴상한 이름을 갖게 된 일을 언제라도 잊을 수 없는 속상하고 한스러운 일로 간직하고 있는 터였다. 아닌 게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멋대로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조사자들이 선뜻 믿지 못하자 화자가 주민증까지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희비극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못할 사연이거니와, 실제 현지조사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조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연을 거듭 전해주곤 했다. 이 사연이 담지하고 있는 보편적 서사로의 전승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는 셈이다. 아마도 이 화자의 성함을 아는 대다수 사람들이 위 사연을 주변인들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4.3. 체험담의 설화적 전승, 그 단면적 사례들

앞 절에서 살펴본 이야기들은 화자 자신이 겪은 이야기로 구연되었으면 서도 서사적 흥미 요소를 갖추고 있어 2차적 전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은 자료들이었다. 자료 가운데는 그러한 2차적 전승 내지 설화적 전승의 면모를 실제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들이 있다. 경험 당사자가 아닌 타자에 의해 구연된 이야기들의 사례이다. 앞서 백마고지 전투에 관한 사례를 본격적이 있거니와, 아래에서 살펴볼 이야기들은 경험자의 가족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전승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여기 저, (헛기침) 북, 북일면이라고 하는 이쪽에, 거기 사람 하나가 육이오 때 전장에 가서 전투하다가 아, 포탄을 맞았는디 잠지가 툭 떨어졌네. 다른 데는 안 다쳤는디 자지만 툭 떨어졌어, 파편에. [조사자 : 아, 파편이 날라와 가지고?] 어. 포탄 파편에. 그래 이 사람이 어디에 입원했느냐면 마산에 정양원이 있었어요, 정양원. 정양원은 군대에서 다친 사람이 요양하는 디어. 그러니까 이 자지니까, 뭐 팔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정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 그거 치료도 할 겸 정신수양을 첫째 해야 되니까.

근데 인제 전쟁하다 정양원 입원을 해서 인제 시골로 인제 연락을 했을 거 아냐? 병원에서. 근데 그 사람이 결혼해서 아직 어린애도 하나 안 낳았는디. 그 마산 정양원에 입원하고 편지가 왔으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면회를 갔네. 아, 면회를 가보니까 멀쩡하네? [조사자 웃음] 가도 멀쩡하지.

아, 그러니까 (헛기침) 병원이니께, 집에서는 면회 왔으니 면회 오면은 외박을 시키거든. 외박증을 떼주거든. 그래 외박을 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아, 그 어머니는 자기 며느리하고 이거 붙일라고 할 거 아냐, 대번. 그래 즈그 어머니는 따로 자고 같이 자는데. 어떡하, 할 수 없이,

“내가 몸이 약하, 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당신하고의 성관계를 못하겠으니 이걸 다 나올 때까지 이해를 해 달라.”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 그런 거지. 부상당해서 아파서 관계 못한다는데

앞, 앞날을 생각해서 어떡해요. 아유, 걱정 말라고. 그래 면회를 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집에서는 부산 병원에, 정양원에 있으니께 올 때만 기다리는데 이게 인제 거기서 제대 특명이 난 거. 그래 집이를 오는데 조치원 와서 인제 충북 선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사람 생각이 어떻겼어요? 자, 인제 집이를 가면은 자기 마누라하고 신방을 차려야 되는데 이, 이게 없으니. 온양역이라고, 시방 그 온양역이, 거기서 떠나서 가면 내수가 내리거든. 근데 온양역하고 내수 사이에서 저녁에 밤차를 타고 오다 어서 차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건 자살 안 할 수가 없어. 참 억울하게 죽은 거지. [조사자 : 아, 직접 아시는 분이요? 군대에서? 나하고 아는 사이는 아니라 내 얘기를 들었어. 벌써 옛날이지, 그때 육이오 때 싸울 때니까. 거기서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자료 23>³⁶⁾

전쟁중에 포탄의 파편에 성기를 잃은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다가 결국은 남자 노릇을 못하는 걸 비관하여 기차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하는 사연이다. 화자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정말 실화일까 싶을 정도로 신기하고 놀라운 사연이다. 주인공의 고향과 죽은 장소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걸 보면 과연 실화로 여겨지기는 하거니와, 실화라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이라는 상황이 낳은 웃지 못할 희비극적 상황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된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더할 바 없는 비극일텐데도 이야기를 전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한 편의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된 형국이니 이야기의 세계란 꽤나 아이러니컬한 것이라 하겠다.

위의 사례가 다분히 단편적인 것이라면 일화 수준을 넘어서서 길고도 잘 짜여진 본격 설화의 가능성을 현시해 보인 이야기가 있다. 청주의 유력한 이야기꾼인 박철규 화자가 구연한 <재가한 부인과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남편>(자료 20)이 그것이다.

36)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6, 민속원, 2009, 312쪽.

6.25 전쟁 때의 일이다. 청원군 강내면에 사는 사람 하나가 군대에 갔는데 집에 실종 통지서가 왔다고 한다. 포로로 잡혀갔던 것인데, 그 어머니와 아내한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아내는 시집 와서 아직 아기도 못 낳고 있던 처지였다. 그 자신 과부로 힘든 세월을 살아온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 이웃 동네로 재가시킬 결심을 했다. 그러자 며느리가 시집을 안 간다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다.

아-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막힌 게, 자기 시어머니한테 자기는 죽어도 다른 집으로 시집 안 간다고 날마다 애원을 해도 안 뒤여.

“너도 나 꼴 되지 말고, 가라 이기여. 수절해 봐야 결과는 나같으다 이기여. 나는 그래도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서 시방까지 살지만, 넌 뭐가 있느냐 이거여 그러니까 가라.”구.

“아- 안간다.”구.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 여기두 찢르구, 여기두 찢르구 해서 할 수 없이 글리 시집을 보냈어, 매누리를. 아- 어머니가 글루다 보내고 나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 그렇지 않아, 며느리 있으면 불쌍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³⁷⁾

그렇게 떠다밀듯이 며느리를 시집보낸 뒤 뜻밖의 상황이 전개된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멀쩡히 살아서 총을 들고 돌아온 것이었다. 반가운 일이지만 그 아내가 없어졌으니 사단이 날 판이었다. 마침내 어머니가 며느리를 시집보낸 사연을 힘들게 이야기하니 남편으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마음을 접으려 했으나 밤이 되자 자기도 모르게 아내가 시집 갔다는 집으로 발걸음이 옮겨졌다. 그는 총을 든 채 그 집 마당의 짚동 속에 숨어들었는데, 마침 그 집에서는 방에 불을 밝히고 독경을 하는 중이었다. 그 집 남자한테 군대에서 죽은 남편의 혼이 붙었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남편이 숨어서 살펴본 정경이다.

37) 위의 책, 151쪽.

환-하게 불을 켜놓고 그냥 동네 사람이 다 모이고 그랬는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마당 짚동, 짚동 이렇게 세운데 고 사이를 딱 들어갔다, 이거여. 들어가 총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며) 쳐다보는 거. 문을 열어놓고 경을 읽는데 그 날 저녁이 귀신 잡는 판결이 나는 거. 판결이 나는데 점쟁이 신장을 잡는데 그 귀신을 달래서 보내느냐 이걸 잡아가지 이 혼두 안 남게 잡아 가두느냐, 이 판결을 하는 거.

그래 이렇게 인제 대 신장을 잡는디 근데 자기 마누라지, 그그 그때는 그 사람 마누라지, 그 마누라가 그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우는 거여. 왜? 죽은 자기 남편을 말이어 잡아 가두지는 말라 이거여. 좋은 데루 천당으루 보내 극락세계루 보내주라고, 여자는 그라는 거. 제발 우리 남편 죽은 남편 죽은 것도 불쌍한데 왜 잡아 가두냐 이거여. 그렇게 좋은 데로 보내주라고 애원을 하는 거. 아- 거 이 놈으 신장, 신장잡이가 잡아가두라고 이걸 혼드네. 그러니까 여자 막 통곡을 하는 거여.

“제발 좀 가두지 말라.”구.

이 놈이 가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부인이 말이야 자기를 그롭게 생각한다, 이거여. 그러니 가, 가슴이 며-지는 거. 그게 젊은 혈기에 그러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위를 향해 뺨으며) 막 폭발하잖어. 가슴이 며-지는 거야.³⁸⁾

남편의 혼을 잡아 가두지 말라는 아내의 애원과 상관없이 독경의 판정은 남편의 혼을 잡아 묶는 것으로 결판난다. 그리고 신장 잡는 사람이 혼을 잡으려고 마당으로 나온다.

아- 이 신장 잡는 놈이 이걸 잡으러 간다고 쫓아나오드니, 그거 이상한 거지. 이 놈으 신장을 가지구서는 그 사람 췌는 짚동가릴 폭 췌르는 거. 그기가 맥힌 일 아녀. 아- 그러니까 이 놈이 총을 세우고 있다 방아쇠를 뺨겨부렸네. 빵하드니 막 총이 터지니까 신장 가지고 와 때린 놈이 뒤로 벌-렁 자빠져 기압하고. 그 누구던지 자빠져요. [칭중 : 그럼, 자빠지고 말고.] 그래 이 사람이 탁 튀어나가니깐, 그땐 튀어나갈 거 아냐.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38) 위의 책, 154쪽.

안에 들어와 인제 경 읽던 놈이고 어떤 놈이고 다 새파랗게 죽었어. 아- 그 놈이 총을 들고 오는데 어떤 놈이 살아. 그 마누라도 옆, 옆에가 앉았는데 쳐다 보드니 그냥 새파래져 죽어. 인젠 죽었어. 아픈 사람두 아픈 게 어드루 삼십육 계 달아나 버렸어. [청중 웃음] 그냥 총알이 날라오니까 아플 새가 어딴어.³⁹⁾

이런 황당한 사단을 거쳐서 본 남편은 아내와 새 남편과 마주앉게 된다. 본 남편은 누구 잘못도 아니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온 탓이라며 아내더러 그 남자와 살라고 이른다.

“당신두 말이지 아-무 생각 하지 말구 이, 현재 이 남편을 섬기구 잘 사는 게 결국 나나 우리 어머니한테두 잘 하는 거라”구.

애기를 하니께. 그 사람두 제발 데려가라구 사정하구, 이 여자가,

“오늘 저녁에 당신이 만약에 나 안 데려가면 나는 이 세상에 오늘 저녁에 끝이다” 이거여. “내가 죄는 죽은 죄를 졌지만은 인저 나는 죽어두 당신 집에 죽는다.” 이거여.

웃자락을 붙들고 안 놓는 거, 나 데려가라구. 안 데리구 갈라면 죽이구 가라 이거여.

그래서 모두들 동네 사람들 모두 다 아는 거, 이웃 동네니께.

“자네가 암만 저거해도 이 사람을 데려가야지 안 된다”구. “널 모레 따질 것도 없이 이 시간에 데리구 넘어가라”구.

그래 데리구 왔어. 그- 안 그래 그거. [청중 : 그렇지.] 또 장가를 들은들 뭐 하냐고. [청중 : 들었어도, 그만 못하.] 어. [청중 웃음] [청중 : 그만 못하.]

그- 데리구 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와서 자기 어머니, 자기 부인, 자기 셋이 끌어안구 실컷 울었어.⁴⁰⁾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사연이다. 상황이 절묘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듣는 이를 빨아들이며 큰 재미와 감동을 전하고 있다. 힘들여 이야기

39) 위의 책, 154-155쪽.

40) 위의 책, 156쪽.

를 꾸며도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벌어졌던 사연이라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전쟁이 빚어낸 희극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삶의 전형적 단면이 한 편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오롯이 살아난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화자의 뛰어난 서사 전개 및 상황묘사 능력이 어울려서 한 편의 명편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졌으니, 그 속에는 어떤 양질의 설화에 못지않은 문학적 재미와 감동, 그리고 주제적 의미가 두루 깃들여 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산출된 설화가 지니는 서사적 힘과 문학적 감응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게 다- 누구 때미 그런 거냐, 이거지 사실은. 그땐 다른 게 아니여 이승만 이하고 김일성이 그 두 놈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왜 아- 우리나라 동족끼리 어떤 놈은 싸우고 싶어 싸웠어. 그게 다- 비극이여. 우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큰- 비극이예요. 그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 통일전장을 서로 한다고 했지만 김일성이하고 이승만이하고 둘이는 우리나라 완전 그렇게 맨들어 놓은 거여. 참- 그 불쌍하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어-. 한두 없어요.

저-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봐요, 동작동. 그 다- 그 기가 막힌 사람덜이요, 다 그거. 거기에 못, 못 앓힌 사람이 더 많아요. 무명용사가 더 많아요, 6.25 사변 때.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절대 우리는 그것은 잊어서는 안, 안된다고 생각해요.⁴¹⁾

화자가 이야기 끝에 덧붙인 비평적 언설이거니와, 이야기가 발휘한 서사적 힘과 맞물려 듣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설복력을 발휘하고 있다. 저 화자의 말대로 6.25가 낳은 불쌍하고 억울하며 기가 막힌 일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인 것이다.

이상 6.25체험담 자료들 속에서 보편적 서사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논의를 진행한 것은 그 이야기들이 지니는 문학적 의의와 전승력을 또 다른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한 의도에서였다. 어떤가 하면 경험담은 2차적 전이를

41) 위의 책, 156-157쪽.

거치며 보편적 서사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사실의 담화’, ‘역사의 담화’으로서의 문학적 정체성과 의의를 충분히 갖추어 지니고 있으니, 앞서 3장의 논의를 통해 본 바와 같다. 6.25체험담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의 문학적 의의, 곧 현실 반영의 사실적·역사적 담화로서의 의의와 설화를 위시한 허구적 담화의 원천으로서의 의의는 둘 다 마땅히 함께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이 논문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6.25전쟁 체험담 자료를 기본 대상으로 삼아 역사경험담의 존재양상과 문학적 성격을 시론적으로 점검하였다. 구비문학의 세계에서 사실적 담화는 허구적 담화와 함께 이야기의 두 축을 이루고 있거니와, 6.25체험담을 비롯한 역사경험담은 오늘날의 이야기 현장에서 설화 이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현장의 화자들이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주요한 문학적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은 그 핵심적 특성을 ‘역사와 현실에 대한 리얼리즘 담화’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구전담화의 기본 연구대상이었던 설화가 현실을 상징적,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데 비해 역사경험담은 실제의 경험을 리얼하게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역사경험담은 일반의 사적인 경험담과 달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역사적 경험을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소통의 밀도와 역사 반영적 성격이 훨씬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그 자체 온전한 ‘역사문학’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채록한 6.25체험담 자료 가운데는 기록문학에서 보기 힘든 일반 민중의 밑바닥 역사체험이 진솔하고도 생생하게 형상화된 사례가 많다. 그 이야기들은 역사적 담화이면서도 이야기로서의 완결성과 재미를 지니고 있고 구체적인 형상을 매개로 설득력 있는 현실인식을 드러낸다고 하는 점에서 그 문학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역사경험담이 지니는 문학적 가치는 역사적·사실적 담화로서의 자체적

가치 외에 설화를 비롯한 허구적 담화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역사적 경험에 얽힌 사연 가운데는 타자한테로 옮겨져 널리 전승될 만한 자질을 갖춘 것들이 있거니와, 6.25경험담 가운데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역사경험담이 구전 과정을 통해 설화로 전변되는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동될 경우 구술담화의 세계가 더욱 역동적인 풍부함을 갖게 될 터인바, 이 지점 또한 역사경험담의 문학적 위상을 살핌에 있어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구구히 살펴본 바와 같이, 6.25체험담을 비롯한 역사경험담은 구비문학에서 중요한 종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그간 우리는 거기 별다른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 왜 그러했을까 생각하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잘 짜여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편적 상상의 이야기’를 원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감각과 가치관에 맞는 ‘문학적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편향성 짙은 주관적 문학관을 바탕으로 이야기문화를 대해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그 관념의 틀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찾아져 사라져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현장의 이야기전승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참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이나 강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정신에 따른 이야기문화의 변화는 역사적 순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자들의 역할이다. 연구자들이 사라져가는 설화를 조사하여 수습한 결과가 소중한 구비문학 연구대상이 된 것처럼, 또는 흩어져 소실되던 고소설 자료들을 찾아 모은 결과가 기록문학 연구의 소중한 자산이 된 것처럼, 사라져가는 역사경험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수습하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학문적 과제를 넘어서 하나의 역사적 과제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편, 『한국민중구술열전』 1-15, 눈빛, 2006.
- 강진옥 외, 『양주의 구비문학 1 연구편』, 박이정, 2005.
- 강진옥·신동훈·김현선·전경옥, 『양주의 구비문학 2 자료편』, 박이정, 2005.
- 공보처, 『한국전쟁 : 증언과 자료』, 1992; 역사비평사, 『한국현대사의 증언 : 6.25와 빨치산』, 가을호(통권4호), 1998.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1-북한의 남침과 서전기-』, 2003.
- 김경섭·김경경, 「시집살이 이야기 조사연구 중간보고」, 『인문학논총』 47,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 김경학, 『전쟁과 기억 : 마을 공동체의 생애사』, 한울, 2005.
-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밀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9.
- 김귀옥,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 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 『경제와 사회』 2000년 여름호, 통권 제46호, 2000.
- 김귀옥, 「지역의 한국전쟁 경험과 지역사회의 변화-강화도 교동 섬 주민의 한국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2006.
- 김귀옥 외,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선인, 2008.
- 김성례,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35-2, 2001.
- 김예선, 「살아온 이야기」의 담화 전략-삶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9, 고전연구학회, 2009.
- 김예선, 「여성의 살아온 이야기에 담긴 파격의 상상력」,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 김왕배, 「한국전쟁의 기억과 반공 보수성의 고착: '남정리' 한 부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42집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9.
-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구조와 의미화방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 김종근, 「지리산 인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빨치산에 대한 기억」, 『인문학논총』 제47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 김현주, 「'일상경험담'과 '민담'의 구술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회, 1997.
- 나승만, 「민생 생애담 조사법」, 『역사민속학』 9,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6·25 전쟁 증언록』 1~2, 2008.
- 박경열, 「제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4·3의 상대적 진실」, 『인문학논총』 제47집,

-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 박성희,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원미사, 2004.
- 박정석, 「전쟁과 ‘빨갱이’에 대한 집단 기억 읽기」, 『역사비평』 2002년 여름호, 역사문제연구소, 2002.
- 박찬승, 「한국전쟁과 진도 동족마을 세등리의 비극」, 『역사와현실』 제38권, 한국역사학회, 2000.
- 뿌리깊은나무 편, 『뿌리깊은나무 민주자서전』 1-20, 뿌리깊은나무, 1981-1991.
- 신동훈, 「경험담의 문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 :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회, 1997.
- 신동훈, 「구전 이야기의 갈래와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비교민속학』 제22집, 비교민속학회, 2002.
- 신동훈, 「이야기문화의 세대별 양상과 경험적 담화 : 경기도 양주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 신동훈, 「여성 생애담의 성격과 조사연구의 방향」, 『인문학논총』 47,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 신동훈, 「시집살이담의 담화적 특성과 의의」, 한국구비문학회 · 한국구술사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0.
-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1~10, 민속원, 2009.
- 염미경, 「전쟁 연구와 구술사 :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동향과 전망』 제51호, 2001.
- 윤정란, 「한국전쟁과 장사에 나선 여성들의 삶」,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 한국문화인류학회, 1994.
-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 윤택림, 해방 이후 한국 부역의 변화와 여성의 일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6-3, 한국가족학회, 2004.
-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2010.
- 윤택림 · 함한희,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 윤희숙, 「여성 생애사 연구방법론」, 『목포대여성연구』 3, 목포대학교, 1995.
- 윤희숙, 「한국전쟁과 지역민의 대응: 전남의 한 동족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5집 2호, 2002.
- 이균옥 외, 『20세기 한국민중의 구술자서전』 1-6, 소화, 2005.
- 이보근 엮음, 『연암면 사람들의 기억』, 예당, 2007.
- 이성숙,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별 기억과 망각」, 『여성과 역사』 제7집, 2007.

- 이용기, 「마을에서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경기도의 한 ‘모스크바’마을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6, 역사문제연구소, 2001.
-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 정근식, 「한국전쟁경험과 공동체적 기억 -영암 구림권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5권 2호, 2002.
- 정현옥, 「여성 생애담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천혜숙, 「여성생애담의 구술사례와 그 의미 분석」,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 천혜숙, 「농촌여성 생애담의 주제와 생애인식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 천혜숙, 「농촌여성생애담의 문학담론적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 최정화, 『6.25 종군기 그 여름 겨울』, 범한, 2000.

Aspects of Stories of one's Historical Experience
and their Literary Features
- Focused on the Korean War Stories -

Shin, Dong-Hun

This dissertation conducted a preliminary examination on the existence aspects of stories of one's historical experience and their literary features, based on the data of the Korean War stories collected through the field investigation. Real discourse composes one of the two main streams of the orally transmitted literature along with fictional discourse, and stories of one's historical experience including the Korean War stories hold a higher post than tales in the field of stories field these days. They act as crucial passageway for the speakers to understand history and reality while communicate with others.

The core characteristics of stories of historical experience can be summarized as 'realism discourse on history and reality.' Compared with tales which has been major objects of study on orally transmitted discourse and deal with reality emblematically and implicitly, stories of historical experience is characterized by reflecting experience realistically. Different from typical personal stories, they are more profound and have stronger tendency to reflecting history as they make historical experiences as the talking point. We can say they are 'historical literature' themselves especially as the whole experience of the people is drawn truthfully and vividly. They are of great value in that they, being historical discourse, have narrative completion and interests, and reflect reality through the medium of specific figures.

The literary value of the stories of historical experience can be found from not only the fact that they are historical and realistic discourse themselves but also the fact that they acted as the major source for fictional discourse including tales. Among historical stories, not a few of them have qualifications to be handed down

to others and worthwhile to be extensively transmitted, and these kinds of cases have actually found among the Korean War stories. When the mechanism that stories of historical experiences transform into tales while orally transmitted operates actively, the oral discourses are expected to have more dynamic richness.

Despite this significance, there have been hardly any research studies on the stories of historical experience. It's needed to arrange the spot survey data and put a proper amount of efforts to perform research before the data on the spot fade away.

Key words: Korean War, discourse of one's experience, orally transmitted discourse, fictional discourse, legend, folktale, oral literature, oral history, modern history

접수일자: 2011. 3. 30 심사기간: 2011. 3. 30~2011. 5. 20 게재결정: 2011. 5. 20
